20160925-1116-_2012528 -90216 16. 9. 23. 5:40 Page 1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 news.onnuri.org | 2016년 9월 25일(주일) 제1116호



10월 5~7일 19시30분, 8일 10~17시
양재 사랑홀 … 폴 스티븐스, 이재훈 목사 강의

일터에서 크리스천으로서의 정체성을 고민하는 남성들을 위한 집회가 막 오른다. 2016 남성부흥집회 '요셉행전'이 바로 그것이다. 10월 5일부터 8일까지 양재 온누리교회 사랑홀에서 '묵상하는 목수들(Contemplative Carpenters)'을 주제로 열린다.

요셉행전은 일터에서 크리스천으로서의 정체성과 소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렵거나 고민되는 남성들을 위한 집회다. 20세 이상 남자 성도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관련기사 6면〉.

요셉행전은 10월 5~7일은 저녁 오후 7시 30분, 8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일과 영성의 대가(大家) 폴 스티븐스 교수(리젠트 칼리지)와 이재훈 담임목사가 강의한다. 폴 스티븐스 교수는 캐나다 리젠트 칼리지 명예교수이자 평신도 신학의 세계적 권위자다. 실천신학의 대가이기도 하다. 저서로는 〈평신도가 사라진 교회〉, 〈참으로 해방된 평신도〉, 〈일의 신학〉, 〈하나님의 사업을 꿈꾸는 CEO〉 등이 있다.

요셉행전 집회에서는 폴 스티븐스 교수가 5일 '거룩'(다니엘; 비협조적인 문화 속에서 자신을 지키며 일하다), 6일 '리더십'(느헤미야; 왕국에 영향력을 미치다), 7일 '사명'(바울; 일터에서의 갈등과 저항에 맞서다), 8일 '영성'(예수; 직업의 거룩함을 보여주다)을 주제로 강의하고, 이재훈 담임목사는 8일 마지막 강의를 한다. 재즈브라스밴드, 방송인 강석우 집사, 천종호 판사, 테너 배재철, 방선기 목사(직장사역연합 대표), 문애란 대표, 정진호 장로(MYSC 대표)가 게스트로 출연할 예정이다.

요셉행전 참가신청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나 각 캠퍼스 목회지원실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1만 원. 10월 2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여성들은 집회장에 입장할 수 없지만 기쁨홀에서 중보기도와 영상으로 참가할 수 있다.

문의: 02-570-7322, 7323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10월 9일은 대중교통 타고 교회 오는 날
사전 허가된 차량만 교회주차장 이용 가능

10월 9일은 대중교통을 타고 교회 오는 날이다. 사전에 주차스티커를 발부 받은 차량만 교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주차스티커는 각 캠퍼스 목회지원실에서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발부해준다.

양재는 양재역에서 교회로 오는 구간만 셔틀이 운영되고, 외부 주차장(양재 환승, 구립, 시민의 숲)은 이용할 수 없다. 외부 주차장을 꼭 이용해야 할 경우에는 개인이 주차비를 부담해야 한다. 택시를 타고 올 경우에도 강남대로나 일동제약 앞에서 하차해 도보로 교회에 와야 한다. 문의: 02-3215-3434, 3436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10월 2일 CGNTV 정기후원 약정행사
약정서 작성, 홈페이지, 모바일앱으로 참여

10월 2일은 CGNTV 정기후원 약정행사 날이다. '한 영혼을 위해 더 멀리 더 가까이'를 주제로 국내 10개 캠퍼스에서 CGNTV 정기후원 약정행사가 열린다. 이날 온누리교회 모든 예배에서 나눠주는 약정서에 기입하는 방식으로 CGNTV 정기후원 약정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신규후원 또는 증액후원을 선택하면 된다. CGNTV 홈페이지와 모바일웹을 통해서도 정기후원 약정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이날 CGNTV는 국내 10개 캠퍼스에 안내데스크를 설치하고 드림통(저금통) 수거 및 배포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문의 : 02-796-2243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선교_ 지구촌 이웃들과 함께 보내 더 풍성했던 한가위 4-5면

인물_ "7년 전 받은 사랑에 고맙다는 인사하러 왔어요" 7면

20160925-1116-_2012528 -90216 16. 9. 23. 5:40 Page 2

그들은 왜 CGNTV를 후원할까?

누군가를 위해서, 나눌수록 행복해져서



선교지에서 CGNTV 안테나를 설치하는 김남섭 선교사.



수묵화를 그리고 있는 박희숙 권사.



김자연(왼쪽), 김자원(오른쪽) 자매.

CGNTV는 100% 후원으로 운영된다. 후원자들이 만드는 방송이다. 10월 2일 CGNTV 정기후원 행사를 앞두고 그들을 만나 왜 CGNTV를 후원하는지 그 이유를 물었다. 사연과 이유는 각양각색인데 공통점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누군가를 위해서'였다. 또 한 가지를 더 꼽으라면 나눌수록 행복해진다는 것이다. 이것이 CGNTV의 존재이유이자 특별함 아닐까.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CGNTV 안테나 설치 '김남섭 선교사'

9년째 필리핀에서 선교중인 김남섭 선교사는 CGNTV의 든든한 후원자다. 그는 14개국을 돌면서 CGNTV 안테나를 설치하고 있다. 선교사들에게 CGNTV만큼 좋은 선물이 없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이다. 절대 CGNTV로부터 후원이나 부탁을 받은 것이 아니다. 본인이 CGNTV가 좋아서 하는 일이다. 그의 신앙이 무너져 가던 시절 CGNTV가 붙잡아 준 은혜를 잊지 못하는 것이고, 조금이나마 빚을 갚는 것이다.

김남섭 선교사는 2008년 기술학교를 세워 복음을 전하겠다는 포부를 품고 필리핀으로 떠났다. 그런데 선교 시작 석 달 만에 위기에 봉착했다. 필리핀 문화와 날씨에 적응하지 못해 풍토병에 걸리고 말았다.

"한국에서 정말 많은 선교훈련을 받고 필리핀으로 갔습니다. 그 어떤 오지를 가더라도 끄떡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엄청난 자만이었습니다. 석 달 만에 몸도 마음도 모두 망가져 버렸어요. 신앙에도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고열에 시달리며 열흘 정도를 누워있기만 했다. 그 힘든 시간 동안 온누리교회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런데 필리핀 오지에서 어떻게 온누리교회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는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다. 포기하고 낙담하고 있는데 불현듯 한국에서 CGNTV 안테나를 가져 온 것이 생각났다. 고열에 시달리며 열흘 동안이나 꼼짝 않고 누워만 있던 그가 벌떡 일어나 단숨에 CGNTV 안테나를 설치했다.

"CGNTV 채널을 틀었더니 온누리교회 예배가 방송되고 있더라고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뻤습니다. 온몸에 생명수가 공급되는 기분이었어요. 소리치고, 손뼉치고 말 그대로 온몸으로 기쁨을 표현했어요."

그 기쁨의 순간 '나만 좋으면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세계 각지에서 분투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떠올랐고, 그들에게 CGNTV 안테나를 선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부터 전 세계를 다니면서 CGNTV 안테나를 설치하고 있다.

"CGNTV 안테나를 설치해주면 선교사님들이 어린아이같이 좋아합니다. 우울증에 시달리던 사모님들이 활짝 웃으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선교지에서 CGNTV는 24시간 틀어져 있다. 선교사들이 집에 있을 때는 물론이고 집밖을 나가도 CGNTV는 항상 틀어져있다. 말씀과 찬양이 온 집안에 가득하면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다.

"CGNTV는 선교사들에게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귀중한 선물입니다. CGNTV를 통해서 선교사들의 신앙과 삶이 변화됩니다. 타성에 젖어 있는 영성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선교사들과 CGNTV를 위해 계속 기도해주시고 후원해 주십시오."

30년 만에 다시 붓을 잡은 '박희숙 권사'

"땅 끝까지 CGNTV 안테나가 세워질 때까지 그림을 그려서 후원하겠습니다."

30년 전 붓을 내려놨던 박희숙 권사가 CGNTV를 후원하기 위해 다시 붓을 잡았다. 박 권사는 그림을 팔아 얻은 수익금으로 CGNTV를 후원하기로 결심했다.

박 권사는 CGNTV가 전 세계 시청률 1위 방송이 되는 것이 소망일만큼 CGNTV의 열혈 팬이다. 어느 날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떠올랐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돈을 벌어 CGNTV를 후원을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후원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전 세계에 더 많은 CGNTV 안테나가 세워질 것이고, 시청자가 자연스럽게 늘어나기 때문에 전 세계 시청률 1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박 권사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재능이 무엇인지를 고민했다. 그렇게 찾은 것이 바로 그림이다. 박 권사는 처녀 때부터 꾸준히 그림을 그려오다 30년 전 예수님을 만나면서 붓을 내려놓았다. 그 붓을 예수님 안에서 다시 잡았다.

"그림과 담쌓고 살던 사람이 전시회를 한다니까 다들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전국투어 전시회를 앞두고 있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많이 도와주셨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박희숙 권사는 전문적으로 미술을 전공하지도 않았고 한국화단에서도 존재감 없는 무명작가지만 그녀가 그린 그림의 인기는 대단하다. 박희숙 권사의 그림에는 평안과 안식과 쉼이 담겨있다. 경기도 파주에서 처음 미술 전시회를 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박 권사의 그림을 보고 위로와 감동을 받았다고 고백했다. 앞으로 부산, 강릉, 서울에서 개인전을 열 계획이다.

"CGNTV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선물 같아요. 매일같이 CGNTV를 사랑하는 마음이 샘솟거든요. CGNTV가 생명수 같다며 울먹이는 선교사님들을 볼 때마다 CGNTV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집니다. 전 세계에 이 좋은 CGNTV를 전하는 일에 함께하고 싶습니다."

초등학생 후원자 김자연, 김자원 자매

2014년 11월 23일 초등학교 4학년이던 쌍둥이 김자연, 김자원 자매가 CGNTV를 후원하겠다고 약정서를 작성했다. 명절 때마다 받은 용돈을 모아 CGNTV에 후원하기로 한 것. 이 자매는 그 돈이 조금도 아깝지 않다고 했다. 오히려 통장에서 후원금이 빠져 나간 것을 확인할 때마다 정말 뿌듯하다고 했다.

두 자매는 TV에서 제3세계 아이들을 보고 꼭 돕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단순히 물질을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려주고 싶었다.

"먹고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마께 제3세계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했더니 CGNTV에 후원하면 그럴 수 있다고 알려주셨어요."

두 자매와 엄마 조은주 집사는 온누리교회 성도가 아니다. 서울동안교회 성도다. 두 자매와 CGNTV의 아름다운 만남은 분명 예비되어 있었다. CGNTV 후원은 아이들도 할 수 있는 선교다. 실제로 두 자매는 CGNTV를 후원하면서 선교가 무엇인지,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배우고 있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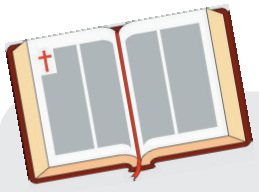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이 선교잖아요. CGNTV가 저희가 후원하는 돈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고,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줬으면 좋겠어요."

김자연, 김자원 자매는 또래 친구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친구들아, 선교를 어려서 못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선교는 어릴 때부터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CGNTV를 후원하자."

CGNTV 정기후원 행사
일시: 10월 2일
방법: 후원 작정서 작성 제출
문의: 02-796-2243

20160925-1116-_2012528 -90216 16. 9. 23. 5:40 Page 3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빌립보서 1:19~30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고, 영광스럽게 되는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결코 피할 수 없고, 피해서는 안 되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삶이란 무엇인가?' 이고, 또 하나는 '죽음이란 무엇인가?' 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에만 답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철학 없이 삶을 살아갑니다. 고귀하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면서 언젠가 맞이하게 될 죽음에 대한 지식과 확신이 없습니다. 삶이 무엇인지 답변하지 못하는 이유는 죽음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삶이 무엇인지 대답하려면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한 번쯤 들어봤을 유명한 대사입니다. 비평가들은 이 대사를 삶과 죽음에 대한 망설임, 우유부단함, 확신이 없는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죽음 이후에 대한 불확실성이 우리의 삶의 확신을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기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은데 또 죽자니 망설여지고, 두렵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삶에 대한 확신이 없고, 죽음 이후에 대한 확신도 없는 것을 두고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삶을 돈이라고 한다면 죽음은 파산입니다. 삶을 즐거움이라고 한다면 죽음은 괴로움입니다. 삶을 권력이라고 한다면 죽음은 연약함과 나약함입니다. 삶을 아름다움이라고 한다면 죽음은 더러움이며 추함입니다. 이 질문은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 있어야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삶과 죽음의 교차로에 서 보지 않은 사람은 이 질문에 확신 있는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 있는 사도 바울이 삶과 죽음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거울이 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21절).

이 고백은 단순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죽음 이후에 구원받는 차원을 넘어서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한다면 가장 정확한 대답이 무엇일까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전체가 "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냐?"라는 질문을 설명해줍니다.

로마서 5장까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희생되시므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속의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6장으로 넘어가면 그 사건을 우리의 각도에서 설명합니다. 로마서 5장이 하나님의 각도에서 십자가의 사건을 설명했다면 로마서 6장은 우리의 관점에서 십자가의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대속제물로 내어준 사건이고, 로마서 6장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입니다.

로마서 6장에 '함께' 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로마서 6장 전체가 예수님과 우리의 십자가 경험입니다. 로마서는 5장으로 끝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역사적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부활이요, 승천이요, 재림입니다. '함께' 라는 단어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이 담겨 있습니다. 골로새서에서는 "우리가 하늘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다시 재림의 때에 주와 함께 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로부터 시작되는 사건들을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안에서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 가운데 우리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의 고백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갈 2:20).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부활하셨음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라는 고백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살아있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의탁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의 의지와 판단이 살아있고, 내가 누군가를 믿어주는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께 나를 의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몇 마디 고백밖에 할 수 없다면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남기고 싶습니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21절).

사도 바울은 지금 삶과 죽음의 교차로에 서 있습니다. 로마감옥에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살지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는 두려움과 아쉬움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항상 그랬듯이 지금도 담대하게 원하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20~21절).

사도 바울은 로마법정의 판결을 기다리면서 자신의 삶과 죽음이 그들에게 달린 것처럼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았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을 통해 위대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 안에 사는 이것이 내게 열매 맺을 일이라면 내가 무엇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나로서는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훨씬 더 좋습니다"(22~23절).

사도 바울에게 죽음은 삶보다 훨씬 좋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죽는 것이 낫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삶의 고통과 고난을 피하고 싶은 생각으로 죽음이 더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혀 죽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처럼 자존심이 상해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욥은 깊은 고난 속에서 "차라리 나를 무덤 속에 숨겨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고난에 눌려서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훨씬 낫겠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것이 아닙니다.

죽음이 삶보다 좋은 이유

사도 바울이 죽음이 삶보다 훨씬 좋다고 고백한 이유는 죽음을 통해 죄로부터 온전히 자유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도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싸우고 갈등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일지라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죄의 소욕으로 갈등하는 번민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죽음을 통해 죄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죽음이 삶보다 더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삶보다 좋은 또 하나의 이유는 죽음을 통해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오직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나그네가 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그네 됨을 강조하셨습니다. 율법에 "땅을 영원히 소유하지 말 것은 너희가 나그네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을 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대상 29:15).

우리 모두는 이 땅의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벧전 1:17).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로 살다가 죽음을 통해 영원한 본향으로, 영원한 거주지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일시적인 체류지가 좋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거주지가 좋습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훌륭한 집을 지어도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미라를 만들기도 하는데 이것은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몸부림에 불과합니다. 이 땅에 영원히 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영원한 거류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역사가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이 땅에서 영원히 거할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삶과 죽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요, 거류민일 뿐입니다.

죽음이 삶보다 좋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본문에 나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원하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고후 5:8).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고백하는 삶은 주와 함께 사는 것이 훨씬 좋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삶이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 때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같이 희미하지만 그때는 대면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수건을 쓰고 있지만 그때는 수건을 벗은 얼굴로 영광스러운 그분을 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삶보다 훨씬 좋습니다.

〈13면에 계속〉

20160925-1116-_2012528 -90216 16. 9. 23. 5:40 Page 4

지구촌 이웃들과 함께 보내 더 풍성했던 한가위

온누리M미션, 제1회 러스타(RUSTA), 'HARVEST 2016' 개최

온누리교회의 추석은 지구촌 이웃들과 함께 했다. 추석 연휴에 국내에 와있는 러시아 유학생들을 위한 '제1회 러스타(RUSTA)'와 이주민 노동자들을 위한 'HARVEST 2016' 집회가 막 올랐다. 한국인 성도들은 휴가를 반납하고 이주민들을 성심성의껏 섬겼고, 이주민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지체들과의 교제를 통해 향수(鄕愁)를 달랬다.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Acts29 비전빌리지에서 한바탕 천국잔치가 벌어졌다. 수백 명의 외국인 이주 근로자들과 한국인들이 어우러져 풍성한 한가위를 보냈다.

한바탕 천국잔치의 포문은 '제1회 러스타'(RUSTA) 집회가 열었다. 14일부터 2박 3일 동안 진행됐다. 러스타 집회는 한국에 와있는 러시아 유학생과 직장인들을 위한 부흥집회다. 올해 처음으로 막 올랐다. 온누리M미션, 러시아권 교회, 사역단체가 연합하고 러시아 선교를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는 자리였다. 러시아에서 온 유학생과 고려인 30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인 봉사자 60명도 자리를 빛냈다.

러스타 집회에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를 주제로 진행됐다. 5번의 집회와 주제별 강의(새로운 삶, 재정, 연애, 가정, 예배, 리더십, 건강, 전도), 토크콘서트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배드미뜨리히 목사, 아르쫌 목사, 한알렉산드라 목사, 바실리 목사가 메시지를 전했다.



'제1회 러스타' 집회에서 러시아언어권 유학생과 직장인, 한국인 봉사자들이 뜨겁게 기도했다.

아나톨리 성도(남부교회)는 "모든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 큰 은혜를 받았다. 이런 집회가 앞으로도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고, 김벨라 전도사(랜드마커미니스트리)는 "러스타 집회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러시아 땅을 향한 비전을 계속 보여주셔서 심장이 뛰었다"고 고백했다. 봉사자 김서영 자매(W공동체)는 "러시아와 중앙아시아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 기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러스타 집회의 뜨거운 분위기를 이주민을 위한 '하베스트(HARVEST) 2016' 집회가 이어받았다. 하베스트 집회는 온누리M미션이 주관하는 이주민을 위한 추석연합집회다. 올해는 'Jump Up'을 주제로 16일 오후부터 2박 3일 동안 진행됐다. 네팔, 몽골, 미얀마, 태국, 베트남, 아랍, 스리랑카, 필리핀, 중국,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에서 온 이주민 400여 명이 참석했다.

'하베스트(HARVEST) 2016' 집회에서는 나라별 예배와 문화축제, 게임(아쿠아 어드벤처), 국제음식축제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친목을 다졌다. 한국인 봉사자 100여 명도 3일 동안 이주민들을 섬기느라 구슬땀 흘렸다.

첫째 날 집회에서 바랏 목사는 "하나님의 사랑의 바다에 뛰어들어 축복의 도구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고, 둘째 날 집회에서는 레비 전도사가 "죄로 인해 침몰하는 배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 뛰어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날 집회에서는 노규석 목사가 "악한 사람도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 뛰어들라"고 권면했다.

특히 김만순 장로(HSBC 재무담당최고책임자)가 '크리스천의 재정관리'를 주제로 한 특별강의가 외국인 이주 근로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김 장로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보화를 쌓는 것이 크리스천 재정 관리의 핵심"이라고 했다.

몽골에서 온 빌해 형제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살라는 김만순 장로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고국에서 선교활동을 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봉사자 이승혁 형제(여호수아)는 "하베스트 2016 집회에서 큰 은혜를 받고 기뻐하는 이주민들의 표정이 잊히지 않는다"고 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목회칼럼

성장의 또 다른 기회


노규석 목사
(온누리M미션)

온누리교회에는 20개 이주민 예배공동체가 있다. 이 공동체 중에서 러시아어예배 공동체가 가장 크다. 서빙고 러시아어예배에는 약 120명, 안산M센터 러시아어예배에는 150~180명이 모여 예배드리고 있다. 인원이나 예배 규모면에서 러시아어예배가 월등하다보니 이주민을 위한 하베스트 집회를 개최하면 러시아어예배가 중심이 된다.

올해 초 러시아연합회 목사님들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러시아연합 집회를 하고 싶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몇 차례 모임을 가지면서 그 이야기가 무르익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러스타 집회를 따로 하면 하베스트 집회의 핵심멤버들이 대거 빠져나가 집회 운영에 차질이 생길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고민하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스타 집회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러스타와 하베스타 집회를 분리하기로 결정했다.

날짜와 장소가 우리의 걱정을 덜어주었다. 대규모 인원이 모여 집회와 숙식을 해결할 장소가 여의치 않았는데, Acts29 비전빌리지에 베데스다 숙소가 생겨 이주민들이 가족 단위로 참가할 수 있게 되었다. 두 집회를 연달아 할 만큼 추석연휴가 길었다는 점도 장점이었다. 우리는 이번 집회에서 사경회 수준으로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다.

이번 집회를 치르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었다. 첫째, 러시아 지체들이 빠져나간 빈자리를 다른 언어권 지체들이 메꿔줬다. 그동안 찬양 인도, 악기 연주, 예배 진행 등을 러시아어예배가 주도했기 때문에 다른 공동체 지체들이 참여할 기회가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러시아어예배 지체들의 빈자리를 메꿔야 하기에 태국, 필리핀, 베트남 친구들이 더 열심히 연습하고, 기도하고, 준비했다. 그러면서 그들의 은사와 역량이 발견되고 커지는 것을 목격했다. 한마디로 성장의 또 다른 기회가 되었다.

둘째, 외부 강사 초빙에서 벗어나 온누리교회 안에 있는 외국인 목회자들을 설교자로 성장시켜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각 외국어권 예배인원이 많아야 수십 명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몇 백 명이나 되는 청중 앞에서 설교할 기회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집회에서는 처음으로 외부 강사가 아닌 온누리교회 외국인 목회자들을 설교자로 세우면서 그들의 열심과 성장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은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해서 설교하고, 기도회를 이끌었다. 집회 인원과 규모가 다소 줄기는 했지만 이를 통해 다른 지체들과 목사들이 기회를 얻고 성장했다.

목회자 대신 장로를 강사로 세운 것도 첫 시도였는데 좋은 반응을 얻었다. 목회자의 설교와 예배가 중요하지만 이주민들에게 직업적인 전문성과 인생의 경륜에서 묻어나오는 신앙 간증을 들려줌으로써 롤모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덜 중요하지 않다. 이런 면에서 온누리교회에는 전문성과 신앙을 두루 겸비한 장로님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인생의 멘토, 롤모델을 더 많이 발굴해서 이주민들에게 진솔하고 감동적인 간증들을 들려줘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온누리M미션은 이번 집회를 통해 얻은 교훈을 이주민사역에 적용할 것이다. 우선 온누리교회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콘텐츠, 은사, 소프트웨어 등을 활용해 이주민연합회들을 도울 것이다. 규모와 시스템 면에서 그들이 열악한 것이 사실이다.

러스타 집회를 준비하면서도 온누리교회 러시아어예배와 온누리M미션 지체들이 중심이 되었다. 앞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전수하는 사역을 펼쳐나갈 것이다. 또 한국인 봉사자 수를 조금씩 줄이고, 이주민 형제들을 스태프로 세워나갈 것이다. 그들을 섬김의 리더십을 가진 리더로 성장시키고 싶기 때문이다.

수동적으로 집회에 참석만 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직접 몸으로 부딪히면서 배워나가야 한다. 그래야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신앙의 선배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섬김의 리더십은 말로는 절대 가르칠 수 없다. 그들이 집회 구경꾼에서 주최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계속 리더십을 길러 줄 것이다.

한국에는 174만 명이 넘는 외국인 이주민들이 살고 있다. 찾아오는 선교지인 그들을 놓쳐서는 안 된다. 온누리M미션이 그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를 부탁한다.

20160925-1116-_2012528 -90216 16. 9. 23. 5:40 Page 5

러스타(RUSTA), 하베스트(HARVEST) 집회현장!

















INTERVIEW

풍성한 사랑과 은혜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집회였습니다. 러시아 연합회, 온누리교회(온누리M미션), 여러 러시아 교회들과 함께 해서 더욱 좋았습니다. 한 공간에서 러시아 사람들을 많이 만난 것도 기뻤습니다. 좋은 장소에서 훌륭한 강사님들을 통해 말씀을 듣고 풍성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러스타 집회에 협력해주시고 힘이 되어준 온누리교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 김블라디미르 목사(재한러시아교회연합회)

이주민사역은 해외선교의 전초전

"성도들은 많지만 실제 움직이는 이는 10% 정도인 것 같아요. 더 많은 성도들이 이 땅에 온 나그네들에게 베풀고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나그네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인도될 때마다 얼마나 기뻐하실지를 생각하면 이주민들이 남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외국으로 선교하러 나가려는 분들께 먼저 이주민사역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해외 나가기 전에 안산M센터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근로자들을 섬기는 것이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 김기환 안수집사(남양주 온누리교회)

언제든지 순종

"한 가족이 된 기분입니다. 여러 나라에서 모인 사람들과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정말 기뻤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라는 다르지만 우리는 한 가족, 한 형제임을 새삼 느꼈습니다. 저는 23년 전 미얀마에서 한국에 왔습니다. 미얀마는 불교국가지만 저는 교회에 다녔습니다. 미얀마의 소수민족 중에 기독교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20여 년이 지나도록 무늬만 크리스천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꿈에 얼굴도 기억 안 나는 할아버지가 나타나셔서 '회개하라.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고 하셨어요. 그 말만 남기고 돌아가는 할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는데 딴사람이었습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깨우쳐 주시는 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쓰신다면 언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 유중눙 형제(미얀마)

이주민들은 우리의 친구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는 네팔 친구가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네팔로 FA를 갔을 때 만나 복음을 전했던 친구죠. 올해 한국으로 일하러 오게 된 친구의 일터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정말 형편없는 환경에서 일하더라고요. 게다가 욕, 술, 담배 등 나쁜 것들을 배우는 것을 보고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이주민에 대한 마음이 생긴 건 그때부터입니다. 하베스트 집회 봉사자로 오게 된 것도 그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들이 처음에는 낯을 가리다가 조금씩 한 가족처럼 어울리는 것을 보고 저 또한 행복해졌습니다. 이런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주민들을 남이 아니라 우리의 친구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타국에서 고생하는 친구를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김다은 자매(허브공동체)

내년에는 꼭 엄마와 함께

"가족 단위로 하베스트 집회에 참여한 이주민들을 보면서 저도 덩달아 행복해졌습니다. 저희 집도 다문화가정입니다. 아버지는 일본인이고, 어머니는 한국인이죠. 엄밀히 따지자면 저 또한 외국인입니다. 제가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지 못했다면 아마 저는 봉사자가 아니라 저분들과 함께 집회에 참여하고 있었을 겁니다. 봉사 중에 잠깐 시간을 내서 이주민들이 예배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순 없지만, 참 좋다는 것이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내년에는 저도 꼭 엄마와 함께 오고 싶습니다."

/ 쿠마 자매(가명)

더 많은 친구들에게

"We will never be the same again(우리는 절대 예전 같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을 만난 우리의 삶은 절대 예전 같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친구 소개로 지난해 처음으로 하베스트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작년에는 예배만 드렸는데 올해는 찬양팀에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찬양을 준비하고 연습했습니다. 제가 직접 참여한 올해 하베스트가 훨씬 더 좋았습니다. 더 많은 친구들에게 이 집회를 소개하고 참여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 줄리어스(필리핀)

20160925-1116-_2012528 -90216 16. 9. 23. 5:40 Page 6

목회기획본부장 이기원 목사와 함께

"남성이 살아야 가정과 교회, 나라가 산다!"

요셉행전, 10월 5~8일 양재 온누리교회 사랑홀

남성부흥집회 '요셉행전'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10월 5일부터 나흘 동안 양재 온누리교회 사랑홀에서 막 오른다. 요셉행전은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남성들을 위한 집회다. 요셉행전이 어떤 집회이고, 주강사는 누구인지 이기원 목사(목회기획본부장)에게 물었다. 다음은 이기원 목사와의 일문일답.



남성부흥집회 '요셉행전'이 생소합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일터에서 신앙인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방황하는 남성들을 많이 봐 왔습니다. 예를 들면 상사와의 불편한 관계, 술자리 문제 등 여러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할지 정립하지 못한 남성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요셉행전은 그런 일들로 고민하는 성도들에게 일터 속에서 분명한 사명감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집회입니다.

일터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지, 일에 대한 소명과 직장에서 선교사적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고민을 풀어주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일과 영성이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발견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요셉행전 집회를 통해 가정과 교회에서 무너지고 있는 남성들의 리더십을 회복시키고자 합니다. 남성이 살아야 가정과 교회, 나라가 살기 때문입니다."

요셉행전이라고 명명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요셉행전은 성경에 나오는 세 명의 요셉을 의미합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 마리아의 남편 요셉, 아리마대 요셉이죠. 야곱의 아들 요셉은 노예에서 총리가 된 인물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살아가는 남성을 의미합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포용의 리더십과 순종을 뜻합니다. 임신한 마리아를 요셉이 포용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일터에서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남성을 가리킵니다. 그는 고위직 관원이었지만 예수님의 장사를 지내기 위해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냈던 사람입니다.

이 세 명의 요셉이 했던 것처럼, 이 땅의 남성들이 리더십과 포용, 크리스천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건강한 사회를 이루기를 소망하는 것이 바로 요셉행전입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남성 리더십이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 남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리더십과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주제가 '묵상하는 목수들'인데 무엇을 뜻합니까?

"일과 영성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묵상'은 영성, '목수'는 일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목수였습니다. 요셉행전 집회 주강사 폴 스티븐스 교수 또한 목수로서 일터신학을 직접 경험한 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일터에서 일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지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강사 폴 스티븐스 박사가 누구입니까?

"폴 스티븐스 박사는 일터신학을 전 세계에서 최초로 정립한 분입니다. 일터신학의 선구자 같은 분입니다.

IMT(Institute for Marketplace Transformation)라는 전문연구 교육기관을 설립해서 신앙과 일의 일치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고 있는 분입니다.

이번 요셉행전에서는 다니엘, 바울, 느헤미야, 예수님의 사례를 들어 일터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간 믿음의 조상 이야기를 쉽게 풀어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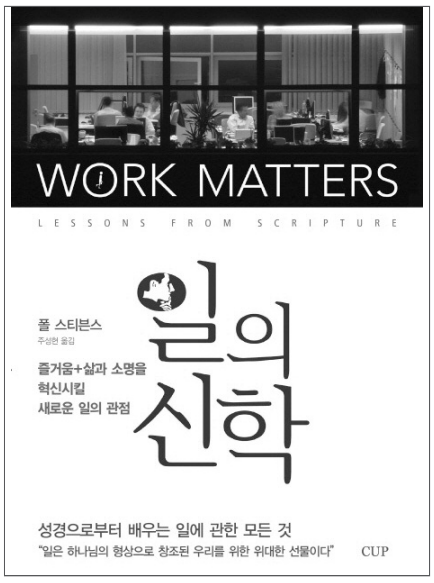
성도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땅의 모든 남성들이 일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집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순백의 마리아들이 마리아행전을 통해 기도했듯이 요셉행전을 위해서도 마리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남성을 세우는 것은 여성들이기 때문입니다. 남성들이 가정과 일터에서 건강한 신앙을 정립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성들은 집회장인 사랑홀에 입장하지 못하지만 기쁨홀에서 중보기도와 영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정현주, 이소정 기자

서평

평범한 삶이 곧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



〈일의 신학〉
폴 스티븐스/12,000원/CUP

요셉행전의 주강사 폴 스티븐스 박사의 〈일의 신학〉이라는 책을 미리 읽고 집회에 참석하면 더 좋을 것 같다. 일과 영성의 균형에 대한 폴 스티븐스 박사의 칠십 평생 연구 결과가 집대성된 필생의 역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책이다.

폴 스티븐스 박사가 일생 동안 마음에 품고 연구하고 실천하며 가르쳤던 주제들을 성경에서 찾아내어 꿰어낸 보물 같은 책이다. 원제는 'Work Matters'(일이 중요하다), 부제는 'lessons from scripture'(성경에서 얻는 교훈)이다. 신학이라는 무거운 단어를 쓰지 않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평범한 일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으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성경 교훈을 통해 쉽게 설명해주고 있다.

우리는 주일예배를 중심으로 교회생활의 중요성을 배워왔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일상에서 일의 중요성은 덜 강조되어 왔다. 성도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교회가 아닌 일터와 일상에서 보내고 있다. 이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 순간들인지를 알면,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야말로 복음행전의 최전선에서 적군과 치열하게 싸우며 사는 사명자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일상 속 평범한 삶이 곧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이다.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주기도문이 현실이 되는 현장이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교훈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도 보여준다.

이 책은 크게 '모세오경을 통해 보는 하나님이 주신 일', '역사서를 통해 보는 청지기적 일', '지혜서를 통해 보는 영의 일', '선지서를 통해 보는 일', '신약성경을 통해 보는 하나님 나라의 일' 이렇게 다섯 부분으로 나뉘어 일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폴 스티븐스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지난날, 내게 주어진 일은 손으로 쇠붙이를 만드는 것에서부터 설교, 서류 정리, 회의 참석, 경청, 집짓기, 교사, 글쓰기, 과제물 검사, 가사까지 다양한 것들이 있었다. 이중 어느 것은 영원히 남을 거룩한 일이며 나머지는 그냥 헛된 일일까? 무엇이 선한 일일까? 이런 일들의 목적은 무엇일까? 누구를 위한 일일까? 하나님께 의미 있는 일은 누구의 일일까? 이 책을 통해 이런 질문에 답을 발견해야 한다."

책에 언급된 성경 인물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일상생활의 영원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폴 스티븐스 박사와 함께 일상생활의 영성 학자로 알려진 로버트 뱅크스(맥쿼리 대학교)는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이 영적인 모델인 동시에 물리적인 일을 했던 이들임을 너무 쉽게 지나친다. 스티븐스는 일상과 종교적 일을 분리하지 않고 기독교적 헌신으로 행해진 모든 일이 경건함을 보여 준다"는 말로 이 책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성도들이 일생 동안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이 책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남성부흥집회 '요셉행전'이 다음 주 수요일부터 시작된다. 일과 신앙에 대해 고민하는 이 땅의 수많은 남성들이 요셉행전에서 그 해답을 찾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를 기대한다.

/ 데이빗 리 선교사(TIM선교사, 치과의사)

20160925-1116-_2012528 -90216 16. 9. 23. 5:40 Page 7

반갑고 특별한 온누리교회 방문기

“받은 사랑에 고맙다는 인사하러 왔어요”

900g 미숙아로 태어난 샬람의 소원이 7년 만에 이뤄진 날

이라크에서 반갑고 특별한 손님이 왔다. 주인공은 바샤르 선교사 가족이다. 그들에게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은인이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을 통해 기적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체험했다. 사연은 이렇다. 7년 전 바샤르 선교사의 아들이 900g 미숙아로 태어났다. 그 아이의 이름이 샬람이다. 한국 최고의 의사들도 아이의 생존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지만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포기하지 않고 무릎을 꿇었다. 샬람을 살려 달라고 80일 동안 눈물을 쏟아가며 기도했다. 그 기도 덕분에 생존이 불가능할 것이라던 샬람이 기적적으로 회복됐다. 신장 120cm, 몸무게 23kg의 건강한 8살 어린이로 성장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양재 온누리교회를 방문한 바샤르 선교사 가족, 900g 미숙아로 태어난 샬람은 맨 오른쪽.

어쩜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지 궁금했다. 표정에 ‘더없이 행복해 보임’이라고 쓰여 있는 것 같았다. 양재 온누리교회를 둘러보는 눈빛에는 교회를 향한 커다란 사랑이 엿보였다.

“오늘은 평생 동안 기억하고 싶은 날이에요.”

바샤르 선교사 가족에게 온누리교회는 마음속 깊이 간직한 마음의 고향이다. 그토록 그립고, 꼭 한번 와보고 싶었던 곳에 왔으니 얼마나 좋을까.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 못할 정도로 들떠 보였다.

바샤르 선교사는 기독교 가문에서 태어났다. 8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17살이 되던 1999년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신학을 공부하고 싶었지만 당시에는 이루기 어려운 꿈이었어요. 사담 후세인이 통치하던 이라크에는 신학교가 없었고, 신학을 공부하러 해외에 나가면 두 번 다시 이라크에 돌아올 수 없었거든요.”

신학을 공부하려면 요르단으로 가야했다. 그러나 떠나면 고국에 돌아올 수 없으니 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바샤르 선교사는 신학교에 갈 수 있을 때를 기다리면서 의학공부를 했다.

바그다드 의과대학을 졸업할 무렵 이라크 전쟁이 발발했다. 그 전쟁이 그가 신학공부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2005년 이라크 전쟁이 끝나고 해외에 자유롭게 나갈 수 있게 된 것. 그때부터 세계 각지의 신학교를 찾아봤다. 그토록 원하던 신학교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 얼마나 신났는지 모른다. 그런데 뜻밖의 문제가 발생했다. 비자가 나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더 나은 길을 예비하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이라크에서 선교를 하던 온누리교회에서 파송된 故 김사무엘 선교사와 이라크 선교팀을 만나게 되었다.

“온누리교회 선교팀과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들의 찬양을 듣고 엄청난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에 좋은 신학교가 있다면 꼭 가고 싶었지요.”

때마침 횃불트리니티신학교에서 공부 중이던 친구가 바샤르 선교사를 초대했다. 그렇게 꿈에 그리던 신학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다.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은 기도뿐

2008년 말 신학교 2학년을 마치고 바그다드에서 아내 사바와 결혼했다. 그 다음해인 2009년 임신 23주차 사바가 남편이 공부하는 한국에 방문했다.

“임신 중인 아내와 한국을 둘러 볼 수 있어 정말 행복했습니다. 횃불트리티니신학교와 온누리교회를 소개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아내 사바가 횃불트리니티신학교 학생들과 여행을 가는 도중에 사고를 당했다. 버스에서 넘어진 사바가 하혈을 했다. 임신 25주가 되지 않았는데 출산을 할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급하게 병원에 갔는데 아이가 너무 작아서 지금 출산하면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고 가슴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아내 사바는 서울 삼성병원에서 2주 동안 집중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상태가 갈수록 악화됐다. 2주가 지나자 더 이상 아이를 뱃속에 품고 있을 수 없었다. 900g에 불과한 아이를 제왕절개로 낳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태어난 샬람은 작아도 너무 작았다. 그런데 그 조그마한 몸 여기저기에 바늘을 꽂고, 엄마 품에 안겨보지도 못한 채 인큐베이터로 들어갔다. 이보다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했다. 샬람이 인큐베이터에 들어 간지 4일 만에 뇌출혈이 발생했다.

“우리 부부가 의사이기 때문에 샬람의 상태가 정말 안 좋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습니다. 담당의사를 찾아가 아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담당의사의 대답은 절망적이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았다. 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었다. 기도다. 그 시각 이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모았다. 병원으로 찾아와 기도하기 시작했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저희를 가족처럼 돌봐 주셨습니다. 정말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는데 하나님의 그 크신 손이 우리 가족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온누리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병원을 찾아 온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정말 열심히 기도했다. 수많은 성도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찾아와 기도했다. 그렇게 80일이 지났다. 눈앞에서 기적이 발생했다. 샬람이 회복되어 인큐베이터에서 나오게 된 것. 아들 샬람이 처음으로 엄마의 품에 안겼다. 그런데 형언할 수 없는 감격의 순간도 잠시뿐이었다. 담당의사로부터 또 한 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샬람이 말을 하거나 걷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바샤르 선교사 부부는 또 다시 절망에 빠졌다. 샬람을 살려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했지만 가슴이 아렸다.

“또 한 번 절망에 빠져 있는 저희 부부에게 에젤선교회 홍정희 권사님이 오셔서 하나님께서 샬람이 뛰어 노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얼마나 큰 힘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바샤르 선교사 가족은 그렇게 이라크로 돌아가야 했다. 고국에서는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만 믿었다. 1년 뒤, 바샤르 선교사 부부는 또 한 번 기적을 체험했다. 샬람이 걷기 시작했다. 세상의 모든 부모에게 자녀가 걸음마를 떼는 순간이 특별하지만 이들 부부에게는 더욱 특별했다. 걷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했던 아이가 아니던가. 감사의 고백이 절로 터져 나왔다.

지금 샬람은 어찌나 말을 잘하고, 건강하게 잘 뛰어다니는지 모른다. 양재 온누리교회 구석구석을 쉼 없이 뛰어 다녔다. 처음 만난 이들과 장난을 칠만큼 붙임성도 좋다.

“샬람이 건강을 회복한 것은 탁월한 의료진들의 뛰어난 의학 덕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손과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사랑이 있었기에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8살짜리 꼬마 샬람이 온누리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 어려서부터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자신에게 보여 준 사랑이야기를 들으면서 성장했기 때문이다. 온누리교회에 직접 찾아와 “도와주시고 기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는 것이 소원이었다. 그 소원이 마침내 이루어졌다. 샬람이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서 한국말로 또박또박 말했다.

“감!사!합!니!다.”

언젠가 온누리교회 성도들을 만나면 이 말을 하려고 수십, 수백 번 연습했다고 한다. 이제는 아버지를 따라 복음 전하는 또 다른 꿈을 꾸기 시작했다.

“샬람이 열방에 하나님 사랑 전하는 청년 되게 해주세요.”

20160925-1116-_2012528 -90216 16. 9. 23. 5:40 Page 8

열매 맺는 가을, 마음의 양식도 영글다

본지에서는 열매 맺는 계절을 맞아 성도들의 마음의 양식도 풍성하게 영글어갈 수 있도록 각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는 글을 연재하기로 했다. 소설가이자 교수 최윤 집사가 '문학과 신앙'을 주제로 두 번째 글을 보내왔다.

기독교적 세계관, 상상력 그리고 아름다운 영성

문학은 오랫동안 인간의 신앙심을 고취시키고 인류에 필요한 교양을 위한 교육의 도구일 뿐만 아니라, 필요한 인성 교육의 내용 그 자체를 제공해왔다. 그런 문학이 우리 시대에 이르러 신앙인들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믿는 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문학에 무관심해지고, 더 나아가서 문학을 떠났기에 문학은 T.S 엘리엇의 표현대로 '타락의 일로'를 겪고 있다고 말이다. 그럼에도 좋은 문학은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회복을 위해 애써야 하는 영역이다.

문학은 어떤 예술도, 어떤 고매한 지식도 제공할 수 없는 구체성을 가지고 여전히 인류의 삶을 세밀하고도 예언적으로 증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류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신앙인이 다시 한 번 새롭게 된 비전을 가지고 문학과 가까워져야 하는 이유이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모든 국면에 대해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하는 책임감에 관해서도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다. 이런 시각으로 문학이 신앙인에게 어떤 도전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그리스도인들과 연관될 수 있는 문학의 중요한 몇 가지 영역을 되돌아보면서 문학과 신앙과의 관계를 다시 친근하게 맺어보고자 한다.


바른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문학을 읽으며 아름다움을 향유해야 한다.

문학과 기독교적 세계관

문학은 아마도 인간의 삶 전반에 대한 가장 광범하면서도 세밀한 기록일 것이다. 문학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은 과학적이거나 이론적인 책이나 영상이 전달하는 지식과는 다르다. 문학은 인간이 지닌 다각적인 정서의 상태와 삶의 양상,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 지식으로 알려주기 이전에 경험하게 해준다. 이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우리 자신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며, 나의 한정된 삶의 영역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이웃의 삶에 대해 마음이 열린 인격으로 준비되어갈 수 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에 대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도 우리의 심성이 문학을 통해 세심해지고, 깊어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일례로 감옥 경험이 없는 우리가 수감자들을 섬길 때 위고의 〈사형수의 마지막 날〉 같은 작품을 읽은 사람은 그들의 내면적 갈등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면서 그들과 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문학을 통해 다양한 삶의 간접적 경험을 한 그리스도인은 삶에서 만나는 무수한 상황이나 사람들에게 더 유연한 이해심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미물인 인간을 이토록 사랑하시고 세세하게 관심을 가지시는데 자녀 된 우리가 어찌 같은 마음으로 우리 주변의 인간에게 마음을 쏟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문학작품은 그들에게 다가가는 매우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발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학이 전달하는 경험적인 삶이 읽는 이에게 잘 수용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전제가 필요하다. 그것은 읽는 우리가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바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독서는 기독교적인 작품에만 한정될 수 없으며, 어떤 문학 안에서라도 기독교적 세계관이나 가치관을 세련되게 갈고 미려하게 다듬는데 도움이 되는 국면을 발견해 낼 수 있기 때문이며, 그것을 통해 우리는 영적 근육을 키우고 세상과도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상상력과 신앙의 성숙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부어주신 모든 은사와 능력들을 인간은 일생에 걸쳐 몇 퍼센트나 발휘하며 살고 있을까. 아마도 우리가 부여받은 여러 잠재적 능력 중에 가장 낮은 지수의 개발을 보이는 영역이 상상력이 아닐까 한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창조적 상상력을 자주 간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상상하셨고, 설계하셨고, 그것을 말로 "있으라"고 명하시며 창조를 이루셨다.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기에, 창조적 상상력의 비밀을 우리 안에도 부어주셨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예술의 영역, 특히 문학은 하나님의 이 속성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영역이다. 물론 하나님은 무에서 창조하시지만 문학은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보면서 상상력을 발휘한다.

우리 안에 내재해있는 상상력의 개발은 문학을 통해 가장 총체적으로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문학은 상상력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상상력은 망상이나 근거 없는 환상과는 다르다. 구체적인 세상에 대한 관찰에서 출발해 현상의 이면, 지각 너머의 깊이를 보게 해준다. 보게 해줄 뿐 아니라 경험하게 해준다. 상상력의 놀라운 힘으로 밀턴은 24절로 이루어진 창세기 3장으로부터 방대한 〈실낙원〉을 썼다. 당시의 독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현대의 독자들도 그 작품을 통해 인류의 조상이 낙원을 잃는 뼈아픈 서사의 모든 굴곡과 내면과 사건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상하며 그 사건을 경험하게 된다.

작품을 만들어내는 창작의 상상력이 있다면 그것을 받는 독자의 반응적 상상력이 있다. 독자 또한 상상력의 정도에 따라 작품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상력은 훈련의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도 있다. 이 두 축을 오가면서 문학은 소통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도 비유적으로 대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문학적 상상력으로 우리가 단련될 때 우리는 성경의 매 절마다 밀턴처럼 대서사시를 상상하지는 못하겠지만, 성경을 양적으로 읽는 우리의 관습은 변화되리라 생각한다. 문학적 상상력은 어떤 의미로는 우리의 경건의 시간을 풍요하게 해줄 수 있을 것이다. 한 절 한 절 말씀의 깊이로 들어가는 문을 열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깊은 대화에서 주님은 피조물인 우리의 반응의 상상력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아름다움의 영성

문학과 관련해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던지는 질문들이 있다. 어떤 문학이 좋은 문학인가? 또 그리스도인 작가나 시인은 한번쯤은 모두 이렇게 자문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어떻게 문학을 통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가? 두 질문은 같은 질문으로 어쩌면 매우 단순한 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아름다운 작품을 쓰고, 아름다운 작품의 아름다움을 향유하는 것이다. 이것을 기독교 문학 평론가인 라이컨은 이렇게 표현했다.

"우리가 읽는 문학작품의 예술적인 미를 열정적으로 즐기고 또한 하나님을 우리가 즐기는 미의 궁극적인 근원으로 해석함으로써 영광을 돌릴 수 있다."

하나님의 창조가 궁극적으로 선한 것이었듯이 주님을 아는 우리가 작품을 창작하고 그것을 향유한다면 그것은 미적으로 설득력이 있는 것일 때 의미가 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다'고 만족해 하셨다. 이 '좋다'는 하나님의 표현에는 선과 진리와 아름다움이 종합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 세 속성은 마치 삼위일체의 신비와 유사하게, 어떤 아름다움의 실체를 세 국면에서 접근하는 것인데 우리가 좋은 문학을 접할 때, 우리의 성경적 세계관은 이 세 영역에서 미적으로 반응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독서 활동에서 문학의 아름다움에 대한 난해한 미학적 접근을 할 필요는 없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미 '좋은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미적인 감식안과, 질서와 가치 분별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을 심어놓으셨다.

그러나 아쉽게도 인간의 미적인 판단이나 감식안은 현대에 들어와 많이 훼손되었다. 미에 대한 개념도 부분적인 것이 되었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 현상의 범주에서만 다루어지게 됐다. 특히 영상의 범람으로 우리의 감각이 시각적, 자극적인 것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아름다움의 내적이며 종합적인 범주에 대한 현대인의 정신적, 영적인 능력이 점차 축소되어 가고 있다. 우리를 둘러싼 세상에서 아름다움이 육의 영역, 물질의 영역에 집착하는 이유다.

'좋은 문학'이 지향하는 종합적인 아름다움의 추구는 파편화되고, 축소된 미의 개념을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시도다. 모든 예술 영역에서 작품에 대한 종합적인 가치평가 보다는 기교와 기술적인 새로움이 종교를 대신할 정도로 미의 개념이 세속화 됐다. 그리스도인이 문학의 종합적인 아름다움을 향유하고 그것을 창작, 독서 등의 일상적인 활동을 통해 나누고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를 둘러싼 문화를 성경적 가치관으로 분별해주고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 되는 것이다.

문학의 성장은 기독교의 역사가 성숙한 곳에서 늘 만개했다고 할 수 있다. 문학작품을 읽는 데는 일정의 여유가 필요하다. 우리 삶에서 꼭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는 가치나, 언젠가는 만날 수밖에 없는 인물이나 사건들과 상상적으로 만나는 연습을 하는 능동적인 활동이다. 그러면서도 그것은 재미를 유발한다. 이 가을에 좋은 문학 작품 한 권을 손에 들고, 능동적으로 우리의 그리스도적 가치관을 적용하면서 읽어보는 여유를 누리시기 바란다.


최윤 교수

글쓴이 최윤 집사는 소설가이자 서강대 프랑스문화학 전공 교수다.
온누리교회 프랑스어예배를 섬기고 있다.

20160925-1116-_2012528 -90216 16. 9. 23. 5:40 Page 9

황재명 목사의 이사야서 산책

선지자 이사야는 누구인가?

OBC(Onnuri Bible Club) '이사야' 과정이 신설됐다. 이사야서는 구약의 23번째 책으로 66장이나 되는 방대한 양이다. 성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OBC 이사야 교재를 집필한 황재명 목사가 알기 쉽게 풀어주는 코너를 마련했다. 총 8회 연재된다.

이사야는 주전 8세기에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다. 그 이름의 의미(여호와는 구원이시다)대로 하나님의 구속역사를 예언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참여할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유지하였고, 예수님의 도래를 가장 구체적으로 계시한 예언자다. 특히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기대와 달리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희생적인 고난을 통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구원하실 날을 바라보고 증거하였던 예언자다(사 53장). 역사적인 관점으로 볼 때, 이사야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침략(사 7장), 앗수르 산헤립의 침공을 경험했고(사 36~37장), 향후 바벨론의 침공으로 이스라엘 후손들이 바벨론에 끌려갈 것을 미리 보았으며, 메대-바사 왕국을 세운 고레스 왕을 통해 이스라엘 후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계시를 받고 예언한 참 선지자였다.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의 부친을 '아모스'(선지자 아모스 아님)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다. 다만 유대전승에 따르면 이사야 부친은 유다 왕 아마샤의 형제로 알려져 있을 뿐이다. 이사야가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 등 언제든지 남유다 왕에게 나아갈 수 있었고(사 7:3, 38:1), 웃시야 왕의 역사를 기록하였던 점으로 보아(대하 26:22) 이사야는 남유다 왕들과 인척관계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사야 8장 3절을 보면, 이사야는 '여성 예언자'로 불리는 여성과 결혼했음을 알 수 있다. 이사야의 아내가 그렇게 불렸던 것은 아마도 그녀 역시 여선지자로 활동하였거나(훌다, 왕하 22:14), 아니면 당시 종교사회적 관례에 따라 제사장의 아내를 여제사장으로 불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사야에게는 최소 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이름은 상징적이었다. 첫째 아들은 스알야숩(사 7:3)으로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라는 뜻이며, 또 다른 아들 마헬살랄 하스바스(사 8:3)는 '신속하게 노략질하고 전리품을 취하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 이름들이 암시하듯, 이사야가 선포했던 예언의 핵심은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을 통한 온전한 회복과 구원'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사야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의 소명이 웃시야 왕이 죽던 해(BC 740년경)에 주어졌음이 이사야서 6장 1절에 암시하고 있다.

이사야의 활동 시기는 이사야서 1장 1절에 기록된 남유다 왕들의 명단으로 볼 때 적어도 40년 이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웃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대하 26:22)는 내용을 고려하면, 이사야는 웃시야가 죽기 전에 이미 선지자로 부름 받아 활동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미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던 이사야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질 심판과 회복의 구속역사를 계시하시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사 6:9~10)는 이상한 사명을 주셨다. 바로 그때가 웃시야 왕이 죽던 해였고, 그 때부터 이사야의 예언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사야의 순교'라는 유대 문헌을 보면 이사야는 므낫세에 의해 처형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살해 위협을 피해 어느 시골의 고목나무 안에 숨어있는 이사야를 본 거짓선지자 벨리알이 므낫세 군사들에게 이를 통지했고, 므낫세 군사들이 이사야가 숨어있는 고목나무를 통째로 톱으로 썰어 죽였다고 전해진다. 이 전승에 근거해 히브리서 11장 37절에 '톱으로 켜서' 죽임당한 선지자는 바로 이사야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한평생 묵묵히 하나님의 소명에 순종하며 귀하게 쓰임 받았던 선지자 이사야. 메시아 예수님의 오심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미리 보고, 그 기쁜 소식(복음)을 선포하였던 이사야의 영성과 헌신 앞에 오늘 겸허히 나를 돌아보며 질문한다. 나는 누구인가?



황재명 목사
(강서공동체)

차세대에게 들려주는 성경 속 인물 이야기

므두셀라! 진시황의 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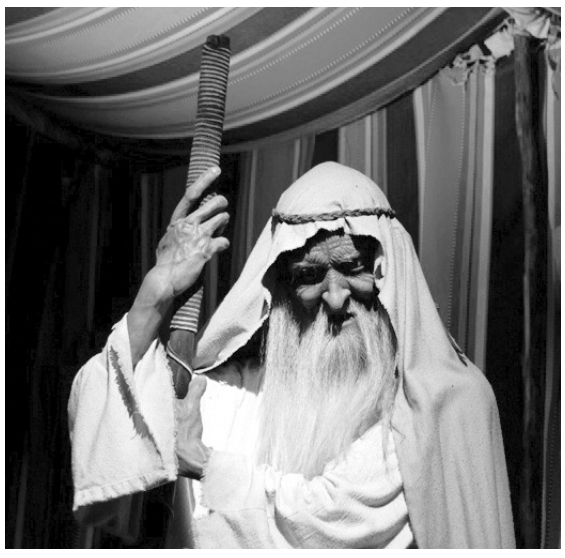
군현제, 문자 통일, 만리장성 축조 등 위대한 업적을 쌓은 진시황도 두려운 것이 있었으니 바로 늙고 죽는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여 늙지도 죽지도 않는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시켰지요. 절대 권력과 쾌락을 누리며 영원히 살고 싶어 했던 진시황은 결국 50세라는 젊은 나이에 허망하게 생을 마감했어요. 진시황뿐만 아니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무병장수를 소망으로 품고 살고 있어요. 예전에 한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김 씨 가문에 5대 독자가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매우 길게 지어 부르던 장면이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그 아이의 이름은 무려 79자나 되지요. "김수한무거북이와두루미삼천갑자동방삭치치카포사리사리센타워리워리세브리카므두셀라구름이허리케인에담벼락담벼락에서생원서생원에고양이고양이엔바둑이바둑이는돌돌이"

이 엉뚱하고도 우스꽝스러운 이름을 해독하면 다음과 같아요.

"김씨 성을 가진 목숨에는 한계가 없는 사람, 십장생(十長生)의 대표 동물, 고대 중국 전설에 삼천갑자(三千甲子, 18,000년)를 살았던 동방삭, 아프리카 최장수인 치치카포, 사리사리센타 워리워리 세브리카도 모두 전설 속 최장수인, 성경에 나오는 인물로 969세를 산 므두셀라, 오랫동안 존재하는 대표 자연물인 구름, 그 구름을 날려버리는 허리케인, 허리케인에도 무너지지 않는 담벼락, 하지만 담벼락에 구멍을 뚫어 무너뜨리는 쥐 서생원, 서생원의 천적 고양이, 고양이의 천적 개, 그 개의 대표 이름 돌돌이"

이 이름 속에 우리 기독교와 관련된 이름 하나가 눈에 띄네요. 바로 '므두셀라' 예요. 구약 성경 중 가장 첫 책인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이지요. 최초의 인간 아담의 셋째 아들인 셋의 계보는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므두셀라, 라멕, 노아로 이어져요. 므두셀라를 알려면 그의 아버지 '에녹'을 알아야 해요. 에녹은 죽지 않고 천국에 올라간 사람으로 잘 알려진 성경 인물이에요. 인간이 육신 그대로 영적 차원의 하늘나라에 바로 들려 올라갔다는 사실은 그가 그만큼 하나님과 동행하며 경건하게 살았다는 뜻이에요.

"에녹은 육십오 세에 므두셀라를 낳았고 므두셀라를 낳은 후 삼백 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삼백육십오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창 5:21~24).



미국 신시내티 크리에이션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므두셀라 인형.

도대체 하나님은 에녹을 얼마나 사랑하셨길래 죽음을 거치게 하지 않고 그대로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셨을까? 바로 에녹의 삶의 반응이에요. 에녹은 그의 첫아들 므두셀라를 낳은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요(창5:22). 그 이유를 유추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아들의 이름을 살펴보는 것이지요. '므두셀라'라는 이름은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이에요. 창을 던진다는 그 단어는 '심판'을 상징하는 단어랍니다. 그런데 그 이름에는 또 다른 뜻이 있어요. 고대시대의 전쟁에는 꼭 창던지는 자가 앞장을 서서 전쟁을 했어요. 부족이나 마을에서 가장 창을 잘 던지는 자가 성 맨 앞에 서서 창을 던져서 상대방의 적장이나 중요한 인물들을 쓰러뜨리면 그 때 주력부대가 공격을 하게 되어 있었어요. 따라서 그 창던지는 자가 죽으면 그 전쟁은 진 것이나 다름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한 배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므두셀라'라는 이름을 들으면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라는 개념을 금방 떠올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녹이 자기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므두셀라'라고 지었다는 것은 에녹이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아들 무드셀라가 죽는 날 이 죄악된 세상에 주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계시를 이미 받았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 것이 노아가 600세가 된 해라고 나와요(창7:6). 그 때 므두셀라가 몇 살인가 계산해 보면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노아를 낳은 것이 182세, 라멕의 아버지 므두셀라가 라멕을 낳은 것이 187세로 나와요(창 5:28). 다 합하면 369세이지요. 갑자기 3.6.9 게임이 생각나나요? 거기에 홍수 심판 때의 노아의 나이 600을 더해 봐요. 바로 969가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났던 그 해가 바로 므두셀라가 969세가 되던 해였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인 노아의 홍수는 므두셀라가 죽은 해에 일어났다는 결론이 나오지요? 어쩌면 노아가 할아버지인 므두셀라의 장례식을 마치자마자 대홍수가 시작했을지도 몰라요. 에녹이 받은 계시대로 므두셀라는 결국 인류의 '창 던지는 자' 역할을 담당한 거예요. 에녹은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세상에 심판을 선포하며 살았던 것이지요. 그것을 기독교에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랍니다. 아직 눈앞에 벌어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그 말씀을 실체로 받아들이고 사는 삶을 '믿음'이라 하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히브리서 11장 5절). 에녹은 바로 그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것이고 당시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담대하게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며 살다가 간 것입니다. 중국을 최초로 통일했지만 폭정과 쾌락으로 일관한 진시황의 삶과 믿음으로 969년을 살다 간 므두셀라와는 달라도 많이 달라 보이네요. 매일 매일 그 오랜 나날을 최선을 다해 자신의 삶을 믿음으로 엮어갔던 므두셀라와 그의 가족들의 믿음과 장수의 비밀을 진즉 알았더라면, 불로장생을 향한 덧없는 욕망으로 자신의 인생을 어처구니없게 소진한 진시황제의 인생은 아마도 180도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곽상학 목사
(강동 온누리교회)

* 이 글은 조선일보에 2016년 7월 13일 게재된 내용을 저자의 허락을 받아 전재했습니다.

20160925-1116-_2012528 -90216 16. 9. 23. 5:40 Page 10



지난해 10월 실시됐던 안전체험교육 중 심폐소생술 교육.

서빙고 안전위원회, 안전체험교육 실시

10월 9일 골프장 마당, 11일 목회자, 직원 대상

서빙고 안전위원회에서 성도들을 대상으로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한다. 10월 9일 주일1부 예배 후부터 오후 2시까지 서빙고 온누리교회 골프장 마당에서 진행된다. 소화기 사용법과 심폐소생술(제세동기사용법), 지진발생체험 및 대처요령, 해양안전사고 예방법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서빙고 안전위원회 조청구 장로는 "안전은 평상시 대비해야 위급한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다"며 "안전체험교육을 통해 개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교회와 가정, 세상에서의 안전을 대비하기 바란다"고 권면했다. 10월 11일 9시(직원예배)에는 서빙고 두란노홀에서 목회자와 간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안전체험교육이 실시된다. 한편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행동 요령을 발표했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문의: 010-5355-0405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

1. 지진 발생 시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길어야 1~2분이므로 이 시간 동안 테이블 등의 밑으로 들어가 몸을 피하고, 테이블 등이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한다.

2. 문을 열어서 출구를 확보하고, 탈출 시 발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발을 신는다.

3. 가스, 전기 등을 차단한다.

4. 화재가 발생했을 때 침착하고 빠르게 불을 꺼야 한다.

5. 지진 발생 시 유리창이나 간판 등이 떨어져 위험하므로 서둘러서 밖으로 뛰어나가면 안 된다.

6. 지진이나 화재가 발생할 때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타고 있을 때는 모든 버튼을 눌러 신속하게 내린 후 대피한다. 만일 갇혔을 때는 인터폰으로 구조 요청해야 한다.

7. 큰 진동이 멈춘 후 공터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한다. 또한 블록담, 자동판매기 등 고정되지 않은 물건 등은 넘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

한마음정신회복예배 찬양인도자 모집

주일 오전 11시, 서빙고 신관 101호

서빙고 한마음정신회복예배에서 찬양인도자를 모집한다. 매주 주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서빙고 온누리교회 신관 101호에서 예배드리고 있다. 기타 연주가 가능해야 한다.

한마음정신회복예배는 정신질환자와 가족, 정신회복과 치유사역에 관심이 있는 성도들을 위한 예배공동체다. 정신질환 치유와 영적 회복이 목적이다.

문의: 김국중 팀장 010-8885-6757

/ 정현주 기자

온누리시니어선교학교 수강생 모집

10월 7일~11월 25일 서빙고 두란노홀

2기 온누리시니어선교학교 수강생을 모집한다. 10월 7일부터 11월 25일까지 8주 동안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서빙고 두란노홀에서 진행된다. 50대 이상 온누리교회 등록 성도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온누리시니어선교학교에서는 시니어를 위한 선교 사역의 재발견, 시니어선교 사역 사례, 문화충격의 극복 과정과 선교사 이해, 시니어선교 사역자의 삶의 태도와 건강관리, 온누리교회 선교정책 등을 배운다.

회비는 4만원, 신청자 본인명의로 입금(기업은행, 276-075575-01-011, 김기범)하고 전화로 확인하면 된다.

문의: 김기범 팀장 010-3377-5167

/ 정현주 기자

서빙고 성찬 포도즙 제조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성찬용 포도즙을 제조한다.

성찬용 포도즙 제조는 서빙고 온누리교회 지하 식당에서 26일 오전 8시 오후 8시, 27일 오전 9시 오후 8시, 28일 오전 9시 오후 2시까지 진행된다.

성찬용 포도즙 제조에는 성찬위원, 임직, 공동체 권사 등이 참여한다. 이 기간동안 식당은 운영되지 않는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청소년 · 부모 성장학교 'Power Impact'

10월 15일 개강

온누리교회 회복사역본부에서 주관하는 청소년·부모 성장학교 'Power Impact'가 개강한다. 10월 15일부터 12월 24일까지 8주 동안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도곡교육관에서 진행된다. 건강한 정체성을 찾기 원하는 청소년이나 부모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청소년 20만원, 부모 1인당 13만원.

청소년·부모 성장학교 'Power Impact'는 청소년들이 건강한 정체성을 수립하도록 돕고, 부모가 청소년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학교다.

문의: 02-3215-3532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Love Sonata 2016 REVIVAL JAPAN

오사카 기 · 도 · 제 · 목

- 9월26일(월) 러브소나타 집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일본 땅에 흘러가기를
- 9월27일(화) 준비하는 실행위원회의 활동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넘치기를
- 9월28일(수) 일본 교회들이 연합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 9월29일(목) 많은 일본인들이 참석해 행사장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 9월30일(금) 복음 선포할 이재훈 목사와 강사, 출연자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 10월1일(토) 러브소나타 오사카를 통해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 10월2일(주일) 오사카 땅에 재부흥의 역사가 쓰이도록

서빙고 새가족 만남의 잔치

날짜: 9월 25일(주일) 시간: 오후 5시~7시(식사제공)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지하2층 시온홀(B2)
대상자: 7월 9일~9월 9일 까지 새가족 8주 과정 수료자

S브릿지
김 원
박태근
신동주
장하은
전효근
한미경
홍성화
황영희
황찬기

가정사역
박성진
유지연
전주애

강서
변상호
이춘옥

강촌
구자연
김은희
김재환
이가원
정다운
정종희
최준영

고양은평
선지영
최윤석

관악금천
박인자
윤병순
이경애
이지영

광명
박종선
유은정

노원
심기정

동대문중랑
김진희
안현욱

최영학
한성란

동작
박성효
이덕희
전준범
조윤호
최수이

마포
백정희
송일선
이상봉
이아름
허진경

북누리
곽종환

서대문
유은주

서빙고
신채민

성동광진
김윤미
이관희
이주희
전은주
최정아

성북
이지수

신용산
김제욱
서화진

양천
박양섭
이수훈
하연주

여의도
우혜연

영등포구로
김선희
김성오
김지영
남영준
박선민
박성혜
석선자
이진영
이현민
이혜원
최연수
한기흥
Monica Lim

용산
김소연
김진용
김형진
이강원
조명아

이촌
박숙자

일산
이명진

중종로
최춘배

9월 세례자

■서빙고
김강현 850301
김미리 690915
김소연 870518
김종관 501202
남주형 980505
유종남 590813
이미송 770924
조인선 830302
진 영 451202
호정은 680513

유아
강현아 141123
강병희 김유진
김도윤 140801
김현기 최승주
김레나 160802
김중호 권 력
김레오 141018
김중호 권 력
김우찬 150325
김명모 권숙영
김이안 140920
김승필 윤지은
박가일 150227
박현국 백은나
박시온 150309
박신환 이신영
박하준 141112
박민지 김두리
양예준 141110
양신일 정선희
이엘린 140912
이승현 차현아
이연주 150211
이정진 박미현
장민서 141025
장성우 이수정
하연아 141201
하상범 나유진
현서진 151004
현경윤 이하영

열린새신자예배
성희진 811014
박혜윤 880202

■양재
김진수 881213
나기정 800715
이현주 850701
조다현 840227
최성현 970320
배진영 851103
박수진 870829

입교
전혜진 750115

유아
강아엘 150910
강동권 이은혜
김세준 150929
김진우 강유정
김주원 150909
김효은 조희선
김지호 150707
김주찬 공희정
박세연 141006
박병준 유지영
박한결 141103
박강훈 한우림
박선율 160711
박강훈 한우림
신준우 151123
신나라 이진영
윤예은 150820
윤두한 김현실
윤예지 150820
윤두한 김현실
이하임 150415
이정주 우안나
임시아 150512
임진웅 김태희
최라엘 160205
최정훈 차미경
함예빈 160825
함상석 구현정

■대학청년부
허브
이민석 960208
김현아 980219
신지용 950213

입교
신에스더 910317
박준영 950211
이지엽 980211

SNS
이슬이 881231

입교
김승현 910624
최은정 900317

유아
김정안 151027
김범준 원유진

20160925-1116-_2012528 -90216 16. 9. 23. 5:40 Page 11

▌젊은 부부 다락방 캠프 '더 깊은 묵상' 간증



나를 나 되게

/ 김연아 성도(강동 온누리교회)

젊은 부부 다락방 캠프 '더 깊은 묵상' 은 하나님의 사랑을 오랜만에 느낀 귀한 시간이었다.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하다보니 외출은 엄두도 내지 못했다. 지난해에도 젊은 부부를 위한 가정사역들이 있었지만 관심조차 갖지 못했다. 육아에 대한 숨통이 약간 틔어졌다고 생각될 무렵 젊은 부부 다락방 캠프 '더 깊은 묵상' 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남편에게 함께 가자고 제안했다. '더 깊은 묵상' 이라는 주제에 호기심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런데 캠프 가기 전날까지 두 아이, 남편 그리고 나까지 심한 기침감기로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른 때였으면 당연히 캠프를 취소했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믿음과 그 캠프에서 더 큰 유익을 주실 거라는 마음이 들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처음 만날 때 낯가림이 심한 나를 아시고 얼굴을 알고 있는 8가정이 모이게 하셨다. 내가 가장 궁금했던 캠프일정 중 하나는 아내들의 묵상시간이었다. 처음에는 과연 자녀들 없이 홀로 1시간동안 묵상이 가능할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권용갑 목사님의 인도로 10분 동안 침묵기도를 하고 나누기로 했다. 청년시절 통성기도나 단체기도에 익숙했던 터라 과연 10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잡념 없이 하나님께 깊이 있게 기도할 수 있을지 궁금하기도 했다. 평안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함이 느껴졌다. 하나님은 아내와 엄마가 아닌 나라는 존재와 대화하기를 원하셨다. 나의 마음속에 울림과 떨림이 교차하기 시작했다. "너를 빚은 하나님이 여기 있노라", "너를 만든 내가 너에게 독특한 은사를 주었단다" 라고 말씀해주시는 것 같았다.

청년시절 하나님을 사모하며 열정적으로 섬겼던 때가 생각났다. 부서사역 및 아웃리치에 열중하며 하나님의 긍휼함과 섬김을 맛보았었다. 사모하는 땅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눈물, 그로 인한 중보의 마음을 품었던 나를 보게 하셨다. 갑자기 마음속에 뜨거움이 요동쳤고 눈물이 나기 시작했다. 나를 나 되게 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

캠프를 마치고 나의 생활에 조그마한 변화가 생겼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 양육하시기에 소소한 일상조차 하나님께 묻고 행하고 있다. 그랬더니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아졌다. 마음, 뜻,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것이다.

▌러브소나타 오사카 실행위원장이 보낸 편지



일어나라 오사카! 빛을 발하라!

/ 시미즈 쇼조 목사(러브소나타 오사카 실행위원장)

일본 오사카에서 한국 온누리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님들께 주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으로 11월 22일부터 23일까지 '러브소나타 오사카 집회' 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고 하용조 목사님과 이재훈 담임목사님을 비롯한 온누리교회를 섬기는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께서 일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열정적인 마음을 가져주셔서 감사할 뿐입니다.

이번 11월에 열리는 러브소나타가 두 번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집회 때보다 더 좋은 집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검토하고, 더욱 신중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러브소나타 오사카 집회의 주제는 '일어나라 오사카! 빛을 발하라!' 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사 60:1~2)라는 말씀에서 따왔습니다.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라는 말씀은 온 세상과 일본, 오사카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에 대항할 힘이 없습니다. 과학의 진보로 생활은 풍성해졌지만, 정치나 과학은 인간의 죄성에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와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빛 속에 있어야만 오사카와 일본, 나아가 온 세상의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러브소나타 오사카 집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들어섰으면 좋겠습니다.

러브소나타에 임하는 오사카 교회들은 중보기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지인들, 친한 친구들, 가족들이 집회에 참석해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기도입니다. 안타깝게도 일본의 크리스천 인구는 지난 70년 동안 반전 없이 계속 1% 이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온누리교회가 러브소나타 집회를 지속적으로 열어주시는 것은 일본인들에게 큰 격려가 되고 있습니다.

러브소나타가 정체된 일본의 기독교를 부흥시키기를 기대합니다. 오사카에서 두 번째 맞는 러브소나타가 그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도 저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오사카에서 만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CMN 샬롬팀 평창 수항교회 아웃리치 간증



"나는 쇠하고 예수님은 흥하는"

/ 황영진 팀장(CMN 샬롬팀)

"기대하지 못하던 분들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웃리치가 끝난 후 강원도 평창 수항교회 김성준 목사님의 고백이다. CMN 샬롬팀과 수항교회는 2015년부터 관계 맺기 시작했다. 우연히 수항교회에서 주일예배를 드린 것이 계기였다. 어느 날 수항교회 김성준 목사님으로부터 의료 아웃리치를 와 줄 수 있냐는 전화를 받았다.

그런데 CMN 샬롬팀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아웃리치와 충북 제천 벧엘교회 아웃리치를 다녀온 상태였다. 연이어 아웃리치를 간다는 것이 여러 가지로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래도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여건들이 열리게 해달라고 부르짖었다. 하나님께서는 CMN 샬롬팀 팀원들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수원 온누리교회 주차사역팀과도 동역하게 하셨다. 그렇게 수항교회 아웃리치를 가게 되었다.

이번 아웃리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이 구체적으로 일치하는 말씀이 빌립보서(1:3~8)에 나와 있었다. 그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 눈물이 난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이 생생하게 느껴진다. 부족한 나를 위해서 귀하고 귀한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했다.

수항교회 아웃리치를 마칠 때까지 "나는 쇠하고 예수님만 흥하자"라는 믿음으로 나아갔다. 그 시간 동안 팀원들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다. "내가 죽기만 하면 되는구나!"를 깨달았다.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깊이 체험한 아웃리치였다.

교회가 수적으로 부흥하지 못해서 매일 새벽 막노동을 나갔다는 김성준 목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같은 동역자들을 예비해 두셨다는 것을 믿는다. 아웃리치든, 공동체든, 인생이든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만을 절대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고백하고 싶다.

▌대학청년부 추석 ODO 간증



대적자인 나를 대리자로!

/ 박태원 형제(길공동체)

8년 전 일이다. 나는 가족들이 아웃리치를 간다고 했을 때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시간과 돈과 노력을 써가며 아웃리치를 가는 것이 믿음이 없었던 나에게는 비이성적이고, 상식 밖의 행동으로 보였다. 가족들의 계속된 설득과 권유에도 나는 끝내 아웃리치를 가지 않았다.

성인이 된 이후에도 교회에 나오지 않다가 올해 교회에 오게 되었다. 그날 들은 설교의 감동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다. 올해 1월 3일이었다. 이재훈 목사님께서 '대적자를 대리자로' 를 주제로 설교를 하셨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대적자 사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대리자로 바뀌었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나는 "하나님은 상당히 머리가 좋으시구나"라고만 생각했지 내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놀랍도록 바뀌었다. 그런데 소극적인 성격 때문에 먼저 나서서 아웃리치를 가고 싶다는 말을 꺼내기가 힘들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매일 기도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 이번 추석에 공동체에서 탈북자들을 섬기고 있는 여명학교로 ODO(One Day Outreach)를 간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도 그 팀에 합류하게 됐다.

중보기도 팀장을 맡으면서 팀원들과 잘 알지 못하는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찾았다. 말씀 구절 하나 찾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렸다. 밤낮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명학교 아웃리치 중보기도팀장으로 세우신 이유를 알 것 같았다.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나의 기도에 응답해주신 것이다. 그동안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해드린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신 것이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다. 아웃리치를 가는 가족들을 비난하던 대적자였던 나를 중보기도 팀장이라는 대리자로 세우셨다. 이뿐만 아니라 부족하고 모자란 것을 채워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어떠한 것이든 순종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주님의 신실한 종이 되고 싶다.

20160925-1116-_2012528 -90216 16. 9. 23. 5:40 Page 12

장로칼럼

배려, 성숙한 주차질서의 시작



송일섭 장로
(한강공동체)

주일예배가 끝나면 교회 주변이 아주 혼잡해진다. 예배드리고 나가는 성도들과 다음 예배를 드리려고 들어오는 성도들, 거기에 주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차량과 버스와 택시까지 합해지면 그야말로 '어지러움' 그 자체다. 주일예배 전후나 교회 행사가 있는 날이면 교회 일대 교통이 마비되곤 한다.

주일예배 축도가 끝나면 바쁜 걸음으로 어디론가 향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주차위원들이다. 주차위원들은 교통난,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역자들이다. 주차위원들이 봉사하지 않으면 교회 주변의 교통흐름은 매우 느려지고 주차장은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다.

주차사역은 힘든 사역이다. 사역 장소가 건물 밖이다 보니 여름에는 살인적인 폭염과 겨울에는 매서운 추위와 싸워가며 봉사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사역을 섬기는 이유는 누군가는 반드시 이 사역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교통 혼잡을 덜어야 하고, 누군가는 효율적인 주차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야 한다. 그래서 주차사역팀이 존재한다. 날씨와 싸우는 것은 할 만하다. 적응하면 되는 문제다. 그런데 좀처럼 적응하기 힘든 요소가 있다. 일부 성도들의 불평과 비협조적인 자세가 바로 그것이다. 이기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욕설을 하는 분들을 보면 의지가 꺾인다. 사역 자체에 회의감이 들기도 한다. 주차사역팀은 이러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친절한 봉사정신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별도의 기도시간을 갖는다. 담당 목사님의 인도에 따라 찬양과 기도를 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해도 차량으로 꽉 막혀 있는 도로를 보면 주차위원들의 가슴이 뛰기 시작한다.

예배드리고 나오는 성도들이 차량을 빨리 빼줘야 하는데, 예배에서 은혜 받고 나오시는 성도들의 움직임은 주차위원들의 생각과 사뭇 다르다.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과 악수하고 인사를 나누는 동안 차를 이동해야 한다는 생각을 잠시 잊기도 한다. 차 한대라도 늦게 나오면 전쟁이 시작된다. 차량 앞 유리에 연락처라도 있다면 다행이다. 전화번호를 남겨놓지 않은 차량일 경우에는 발만 동동 구를 뿐 속수무책이다. 그러는 사이 경적소리와 함께 고함소리가 들려온다. 애꿎은 주차위원들에게 입에 담기조차 거북한 욕설이 쏟아지기도 한다. 이럴 때면 주차위원들은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고 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기쁨으로 견딘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사람들' 이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며 바보행전을 써 내려가는 사람들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신 것 같이 그 모습을 닮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모두에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 주차문제, 서로가 조금씩만 배려하면 어떨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주차위원들의 안내에 잘 따라 주신다. 칭찬도 아끼지 않고, 늘 격려해 주셔서 힘을 얻는다. 함께 은혜를 나누고 누리는 주일에 모든 성도님들이 성숙한 주차질서에 한 몫을 담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배려하는 마음이 성숙한 주차 질서의 시작이다.

권사칼럼

포도즙과 나



박용희 권사
(분당B공동체)

나는 성찬식 때 사용되는 포도즙을 볼 때마다 깊은 감동을 느낀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포도즙 만드는 사역을 내게 맡기셨기 때문이다. 나의 손을 거쳐서 포도즙이 나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린다. 때로는 그 감격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곤 한다.

나는 20여 년 동안 성찬용 포도즙을 만들어 왔다. 그래서일까. 포도즙을 만드는 일은 나의 삶의 일부다. 90년 대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류석인 권사님과 함께 성찬 포도즙 만드는 사역을 시작했다. 당시 류석인 권사님의 남편은 예배담당 장로로, 나의 남편은 예배담당 위원장으로 섬기고 있었다. 그 덕분에 나는 류석인 권사님께 직접 포도즙 만드는 법을 배울 수 있었다. 1999년 내가 양재 온누리교회로 가게 되면서 포도즙 만드는 사역을 쉬게 됐다. 서빙고에서 포도즙을 만들어서 양재에 나누어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점점 성도 수가 많아지고 포도즙 양도 방대해지자 류석인 권사님께서 양재에서도 포도즙을 만들 것을 권유하셨다. 그때부터 나는 다시 포도즙 만드는 사역을 하게 되었다.

포도즙을 만드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틀을 꼬박 작업해야 완성된다. 포도즙을 만드는 과정은 이렇다. 주방에 있는 큰 솥에 물 없이 깨끗하게 씻은 포도만 넣고 달인다. 처음에는 센 불에서 끓이다가 나중에는 중간 불로 끓인다. 여기서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은 불의 온도와 소요시간이다.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 포도에서 즙이 나온다. 큰 그릇 위에 소쿠리를 받쳐놓고 부으면 포도껍질은 걸러지고 즙만 모아진다. 모아진 포도즙과 설탕을 5대 3의 비율로 섞은 뒤 끓여서 졸인다. 이때 설탕이 방부제 역할을 한다. 졸인 포도즙을 병에 넣고 뜨거울 때 바로 진공포장을 한다. 이것을 1년 동안 보관하게 된다. 성찬식 할 때 보관된 포도즙과 물을 1대1 비율로 희석해서 쓰고 있다. 뜨거운 불 앞에 오랫동안 있는 것이 쉽지 않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등에는 땀이 비 오듯 쏟아진다. 그럼에도 사역할 때마다 기쁨이 있다. 예수님께서 피와 물을 다 쏟아내시며 나를 구원해주셨기 때문이다. 희생과 고난이 있었기에 참된 구원도 있다. 이처럼 나 또한 포도즙 만드는 것이 뜨겁고 힘들지만 나를 불러주신 것에 큰 감동이 있다. '내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귀한 사역을 맡기셨을까' 를 생각하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생명을 살리셨듯이 하나님은 포도즙 사역을 통해 나의 병을 치유해주셨다. 5년 전 목 디스크가 왔다. 그 고통은 잠을 못 이룰 정도였고 근 한 달 동안 체중이 7kg가 빠졌다.

이때 가장 먼저 들었던 걱정이 포도즙을 만드는 사역이었다. 포도의 당도가 제일 좋은 9월 중순부터 포도즙을 만들어야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목 디스크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너무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이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갔다. 사역 도중 고통이 심해서 잠시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친한 권사님이 어디가 아프냐고 물었다. 상황을 설명했더니 나와 똑같은 증세가 있었던 권사님이 벌침을 맞고 깨끗하게 나았다고 했다. 포도즙 사역을 마치고 소개받은 권사님께 연락했고 몇 달간 벌침을 맞았다. 신기하게도 극심했던 통증이 사라졌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만약 내가 아프다고 사역에 나가지 않았다면 그 정보를 듣지 못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포도즙 사역을 통로로 병을 치유해주신 것이 분명하다. 나는 올해로 68세다. 하나님께서 내게 체력을 허락하시는 날까지 이 사역을 감사함으로 섬길 것이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주신 그 사랑이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강미향 목사의 성경적 삶으로 디자인하라!

벌거벗었어도 부끄럽지 않은 관계



강미향 목사
(S브릿지공동체)

나는 일상의 많은 부분을 거리낌 없이 남편과 나누는 편이다. 가정생활을 하면서 드는 마음과 생각, 가족관계, 교회에서의 사역들, 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 그때 들었던 나의 감정, 앞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등 여러 부분들을 이야기한다. 남편은 그것을 귀담아 들어 줄 뿐 아니라 그 시간을 즐거워한다.

어떨 땐 내가 이렇게까지 전부 이야기하는 것이 나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다. 하지만 부부는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마음을 벌거벗고 나눈다.

단 두 가지 예외적인 부분이 있다. 남편이 들었을 때 그 사람의 힘을 빼게 할 수 있는 요소나 적절한 시기를 봐야 할 때다. 또 하나님 앞에서만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주님 앞으로만 가져간다. 목회자이자 상담을 전공했기에 나를 믿고 자신의 삶을 풀어놓은 많은 사람들의 사연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라도 비밀을 유지한 채 가슴 한편에 놓아둔다.

이런 예외 경우를 제외하고 남편과 내가 벌거벗었어도 부끄럽지 않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유는 어떤 말을 하든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면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얘기할지라도 감정을 그대로 받아주고 믿어준다. 이러한 신뢰가 발가벗은 채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다. 잘못된 것을 직면하게 하려한다거나 고치려 들지 않는다. 마음 아프게 겪었을 상황을 먼저 읽는 것 같다. 기다려주는 부분도 있다. 주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가꾸어 가실 것이라는 신뢰도 있다. 그래서 나는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모두 다 고자질 하는 것처럼 남편에게 이야기 할 수 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나의 연약함이 많음에도 그것을 고치려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나의 것을 다 풀어 놓을 수 있도록 자리를 깔아준다. 그렇게 할 때 마음을 얻고, 자신의 모습을 부끄럽지 않게 드러낼 수 있는 것 같다. 하나 됨은 '하나 되자' 를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이 먼저 상대의 마음을 읽어주고 들어줄 때 진정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런 은혜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바로 예수님의 성품에서 흘러나온다. 우리가 어떤 모습, 어떤 상태이든 주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것은 그분은 비밀을 유지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로 할 수 없는 안정감이 있다. 뿐만 아니라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아갈 때 그것을 들어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신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그분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지를 느끼게 해 주신다. 나는 그 하나님이 참 좋다. 벌거벗었어도 부끄럽지 않은 관계는 주 안에서 먼저 하나가 되고, 부부관계 안에서 하나 될 때 형성 된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가정에 임할 것이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창 2:25).

20160925-1116-_2012528 -90216 16. 9. 23. 5:40 Page 13

주일강단

〈3면에 이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 땅의 삶이 죽음 이후보다 훨씬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오해입니다. 편견이요, 진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죽음이 삶보다 훨씬 좋으니까 모두가 빨리 죽기를 소망하고, 삶속에서 아무것도 안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참된 신앙입니까.

삶은 죽음보다 더 필요한 것

사도 바울은 죽음을 삶보다 더 좋은 것이라고 고백하는 동시에 삶은 죽음보다 더 필요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죽기보다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이유를 더 찾았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도 아니고, 죽음이 삶보다 훨씬 더 좋다는 것을 몰라서도 아닙니다.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 내가 육신에 머무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 내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머물고 함께할 것을 확신합니다. 이는 내가 여러분에게 다시 갈 때 나로 인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많아지게 하려는 것입니다"(24~26절).

24절 초반부에 보면 "내가 여러분을 위해 육신에 머무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삶에 대한 사도 바울의 관점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이 삶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인데 빨리 죽지 않고 더 살아야 할 이유를 자신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죽음은 삶보다 좋은 것이고, 삶은 죽음보다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살아야 할 이유는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과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통해 유익하게 되는 것이 두 번째이고, 자신의 삶과 죽음은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십시오. 이것은 내가 가서 여러분을 보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성령 안에 굳건히 서서 한마음으로 복음 안에서의 믿음 생활을 위해 함께 달려 나간다는 소식을 듣기 위함이며 또한 대적자들의 그 어떤 엄포에도 놀라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증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27~28일).

사도 바울이 사는 이유는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입니까. 어떤 규칙, 규율, 제도를 만들어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가 복음입니다.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그 고백대로 사는 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개개인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고백하면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는 고백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고난이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예수님의 주권과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하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대적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놔둘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할 책임, 곧 그분을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을 위해 고난도 받아야 할 책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나와 동일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내 안에서 보았고 아직도 내가 싸우고 있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29~30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고난을 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심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면 고난도 이기고, 죽음도 이깁니다. 우리의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바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은 우리가 쌓아놓으려고 했던 것, 우리가 의지했던 것, 우리가 바라보았던 모든 것을 불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내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고난입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내게 사는 것이 나였는지 아니면 그리스도였는지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증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더 좋은 것과 더 필요한 것

사도 바울은 좋은 것과 더 필요한 것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더 좋은 죽음을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삶을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동시에 자신에게 더 필요한 삶을 통해 성도들을 섬기기를 소망했습니다. 만일 그가 더 좋은 것을 소망하지 않고 더 필요한 것만 소망한다면 현실에 파묻혀 방향을 잃었을 것입니다. 만일 더 필요한 것을 소망하지 않고 더 좋은 것만을 소망한다면 무책임하고, 비현실적이고, 도피적인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사는 것이 힘들지라도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병을 이길 이유가 있습니다.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의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왔습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드러낼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는 더 좋은 것과 더 필요한 것 사이에 끼어 사는 인생입니다. 죽는 것이 분명히 더 좋은 것이지만, 자신이 필요로 하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더 좋은 것을 소망하는 것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소망하는 것이고, 더 필요한 것을 소망하는 것도 그리스도를 바로 보여주는 삶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자신을 통해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고, 그리스도가 영광스럽게 되는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죽음은 삶보다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정주호의 건강한 몸만들기

고혈압 관리하는 세 가지 방법



정주호
(스타트레인 대표)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찌는 천고마비(天高馬肥)의 계절이다. 왜 가을만 되면 어김없이 몸이 불어날까. 유난히 식욕도 왕성해진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갖은 모양과 맛을 담은 음식사진을 올린다. 마치 그 식당의 홍보대사라도 된 것처럼 말이다. 그들은 조금 더 자극적인 맛, 사람들이 잘 모르는 신(新)메뉴를 알리기 위해 애쓴다.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을 달래러 교회에 와야 할 사람들이 식당에 줄을 선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우리는 하루 세 끼만 먹어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다. 음식도 위에 부담이 가지 않을 정도의 양만 먹으면 된다. 그런데 배가 부른데도 더 먹는다. 오늘 하루 주어진 양식만큼만 먹는 것이 아니라 내일 먹을 양까지 채운다. 이를 '식탐'이라 부른다. 몸에도 좋지 않지만 신앙적으로도 긍정적이지 않은 것 같다.

모세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0년 동안 매일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한다면 비만과 당뇨, 성인병이 없을 것이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만나가 있어도 다음날 만나가 썩게 되는 이유에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있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만을 방지하고 식탐을 절제하게 하려는 뜻 아닐까. 참된 진리를 철저하게 깨닫게 하려는 훈련 방식인 것 같다.

음식은 육신의 기쁨이다.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살리는 은혜의 양식이기도 하다. 나는 현대인의 잘못된 습관으로부터 발생하는 고혈압 관리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고혈압은 체중조절, 염분섭취 제한,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조절 가능하다. 물론 이 방법은 운동과 병행했을 때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효과적인 혈압 조절 방법은 세 가지다.

첫째, 체중을 조절해야 한다. 체중이 정상인 경우에는 그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만인 경우 의사로부터 체중을 줄이는 식이요법을 권고 받아야 한다. 혈압의 완화는 체중이 감소할 때 일어난다. 다시 비만이 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혈압은 낮은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체중조절은 고혈압 치료의 유일한 대안이기도 하다.

둘째, 좋지 않은 식습관을 고쳐야 한다. 의사나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식습관 개선이 어렵다. 고혈압 환자는 주별, 월별 단위의 체중감량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피해야 하는 음식과 섭취해야 하는 음식의 종류를 분류하고, 건강한 식사를 해야 한다. 고혈압 치료는 일반적으로 소금섭취를 제한해야 된다. 염분은 인체로 하여금 더 많은 수분을 요구한다. 과도한 수분이 조절되지 않으면 순환혈류량이 증가시킨다. 짜지 않게 먹는 좋은 식습관은 신선한 채소 및 과일, 육류를 섭취하는 것이다. 소금 대신 향료나 레몬주스 등을 마시고, 베이컨, 소시지, 염장식품, 겨자, 치즈 등과 같은 고염분 음식을 가급적 피해야 한다. 또 달걀노른자, 고지방 육류, 동물의 간이나 신장, 갑각류가 들어있는 높은 콜레스테롤 음식도 피해야 한다. 육류통조림이나 크림, 치즈, 버터 등의 육가공품 및 유제품처럼 포화지방이 높은 음식물도 마찬가지로 제한해야 한다. 옥수수유와 두유와 같은 불포화지방을 함유한 음식물로 대체하면 된다.

셋째,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든 스트레스를 완전히 피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스트레스의 원인을 완화하고 조절할 수 있다.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하면 혈압을 완화시키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보다 편안하게 해준다. 또 고혈압 환자는 환절기에 실내운동을 해야 한다. 운동을 거의 하지 않거나 신체적으로 운동하기에 부적절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심장질환의 발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회복기간도 더 길다.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이 2mmHg 감소시킬 경우 뇌졸중의 위험을 14%, 17%를 낮출 수 있다. 관상동맥과 질환의 위험은 각각 6%, 9%를 낮출 수 있다. 고혈압과 관련된 합병증의 위협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1115호 20160911 게시판_925호 편성표 게시판(15면없음) 16. 9. 23. 오후 5:25 페이지 1

서빙고
02.793.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본당
2부 오전 9:00 본당
3부 오전 11:30 본당
4부 오후 1:50 본당
5부 (십자가의 길) 오후 4시 경찬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본당
(일본어통역 지원)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본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시 본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20 본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본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본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본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본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본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 손정훈 목사
시간: 매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 김국중 팀장(010-8885-6757)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하태일 팀장(010-3798-3148)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홀
문의: 박범식 팀장 (010-5225-1519)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7:00~ 8:30 선교관 403호
문의: 윤명자 팀장 (010-3217-9593)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홀
문의 : 전도본부 (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홀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홀
문의: 김영선 팀장(010-3474-7635)
일본어예배
매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홀
문의: 김상호 팀장(010-9349-5631)

영어예배
매주일 오후 4:00 본당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창무 집사(010-7917-8008)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안산 – 주일예배
러시아 예배 10:00 안산M센터 Onnuri hall
캄보디아 예배 10:00 안산M센터 Peace 302
미얀마 예배 10:30 안산M센터 Joy 202
몽골어 예배 10:30 안산M센터 Joy 201
네팔 예배 10:30 안산M센터 Peace 303
열방 예배 09:00/11:00 안산M센터 Manna hall
태국 예배 14:00 안산M센터 Peace 303
스리랑카 예배 11:30 안산M센터 Peace 304
베트남 예배 11:00 안산M센터 Peace 305
필리핀 예배 10:30 안산M센터 Peace 301
다문화 예꿈 10:30 안산M센터 Dream Kids Room
다문화 꿈땅 11:00 안산M센터 StarTree
다문화파워웨이브 14:00 안산M센터 StarTree
서빙고
몽골어예배 14:00 선교관 401호
러시아예배 14:00 선교관 301호
네팔예배 14:30 선교관 402호
아랍예배 14:00 본관 B102호
매월 첫째주 선교관 402호
다문화꿈땅예배 15:00 선교관 403호
인천 몽골어 예배 13:00 프리스페이스3층
평택 몽골어 예배 11:30 평택 온누리교회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
서빙고: 매주 토 오전8:00 시온홀
양재: 매주 토 오전8:00 JDS홀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본관 B102호
문의: 공자정 집사(010-5101-4613)
군 선교와 군입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 (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웅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환우기도모임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12:15~2: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대상: 봉사자 및 환우 중보 요청자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오전 10시30분-12시30분
-셔틀운행(010-9117-9325)
-서빙고출발 09:00, 양재출발 09:30
-Acts29비전빌리지(양지)출발 15:00
서빙고 목요어머니 기도회
시간: 목요일 10시 30분 / 누리홀
문의 : 안민경 간사(02-3215-3523)

IBS 서빙고 토요반 62기 모집
일시: 10월 15일~11월 26일 매주 토
10:15~12:30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시온홀
문의: KIBI 사무실(02-792-7075)

안산M센터 토요일 봉사자 모집
대상자:외국인유학생,다문화가정
시간: 매주 토요일 오후4~6 가능 시간
선택, 강의1시간
과목: 네일 아트, 메이크업(뷰티), 손글씨
(POP), 12인승합차 운전가능자(1종
보통면허이상)
문의: 권경민 간사(031-491-9650)

일대일과목별특강안내
일시: 주일 오전 8시10분~10시10분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강의: 10/9 전도 여성민 목사
참가자격: 모든 양육자

두란노서원 채용 공고
모집: 텔레마케터 1명(신입)
자격: 크리스천, 장애인 우대, 보훈대상자
우대, 동종 업종 우대
마감: 10월 10일(월)
지원: http://www.duranno.com/recruit/)

안산 온누리지역아동센터 교사봉사자 모집
과목: 한국어, 영어, 수학, 숙제지도 등
대상: 초등학생, 중학생
시간: 월~금, 오후 4시~8시
장소: 안산역 도보 10분
문의: 조준기 총무교사(010-4444-2802)

한터 바이올린 기증자 모집
모집: 4/4 사이즈의 바이올린
사역: 바이올린 교습
대상: 한누리 학사(탈북 여대생 기숙사)에
입주하는 탈북 여대생
문의: 02-3463-9686

'사랑의줄잇기' 온라인 쇼핑몰 자원봉사자 모집
대상: SNS를 하고 계신 분(5명 모집)
일시: 상시모집(단기 9월 10일~10월 10일
까지)
내용: '사랑의줄잇기' 의 여러 무브먼트 기획 및 실행. 기부기업 및 개인 발굴 등.
장소: 서빙고 신동아쇼핑 내 사랑의줄잇기
문의: 조현정 간사(010-9737-0776)
***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양 재
02.570.7430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0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2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월요QT예배
매주 월요일 오후 7:30 화평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목요찬양예배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7:50 기쁨홀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5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이수준 팀장(010-6398-6022)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2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Rock 5세 ~ 초등1(충성홀 11:30)
Jesus Crew 초등2 ~ 초등6(JDS홀 9:00)
Jesus Vine 중등 ~ 고등 (충성홀 9:00)
도곡교육관 주일 9:00 예배
성인예배: 사랑홀 (숙명여고 대강당)
차세대예배(한국어)
영아부: 도곡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도곡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교육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교육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11:30 예배(영어)
Adult Service: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차세대예배(영어)
Hope Zone(Newborn~Age4)
: 도곡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교육관 꿈터(B동 1층)
Joy Zone(Grades3~6)
: 도곡교육관 온유홀(A동 2층)
Middle School Group(Grades7~8)
: 도곡교육관 기쁨홀(A동 3층)
High School Group(Grades9~12)
: 도곡교육관 기쁨홀(A동 3층/오후1:30)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청년부)
갈렙청년부예배: 사랑홀(숙명여고대강당)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최재호 전도사(010-4336-3528)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제라르 티네베)
일시: 주일 오후 2:00
장소: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3912-9393, *통역 지원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양재 JDS홀
묵상의집(WIN) 주일예배
일시: 매 주일 10시 남한산성 묵상의집
*셔틀운행(010-8870-9313)
-양재역10번출구 9:00 출발(던킨도너츠)
-복정역 2번출구 9:20 출발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배수연 간사(02-570-7277)
병원사역예배와 환우기도모임
장소: 양재 비전홀A
시간: 매주 수요일 10:30~14:00
문의: 김정숙 팀장(010-4946-3832)
환우중보 및 심방요청을 받음
양재 목요어머니기도회
목요일 10시 30분 / JDS홀
문의: 이현주 간사(02-570-7553)
도곡 어머니기도회
목요일 10시 30분 / 충성홀
문의: 이현주 간사(02-570-7553)

POINT5 베이스 기타 봉사자 모집
예배시간: 주일 오전 11시 30분
양재 하용조기념홀
문의: 박영선(010-7423-7488)

공사랑 축구선교팀 회원모집
대상: 온누리교인 혹은 주변 믿지
않는 남편, 아들, 지인
시간: 매주 토 아침 9시~13시경
문의: 오명석 총무(010-6470-7131)

온누리선교재단 직원 채용공고
모집: 양재 커피숍 직원, 양지 영선 직원,
결혼예배 담당 직원(1년 기간제계약직)
자격: 세례교인, 경력무관(경력자 우대)
우대: 관련자격증 소지자, 인근 거주자
문의: 총무팀(02-3215-3102)

부 천
032.322.9686

주일예배
1부오전7:00/2부오전9:00/3부오전11:30/4부오후2:00/5부오후4:00(대청예배)/6부오후7:00(부흥예배)
새벽기도 월~토 오전5:20 본당
차세대 예배
영아부-오전9:00, 11:30 / 유치부-오전9:00, 11:30
유년부-오전9:00, 11:30 / 초등1부-오전9:00
초등2부-오전11:30 / 유초등부-오후2:00
중등부-오전11:30 / 고등부-오전9:0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심야예배 매주 수 오후 9:00
한사랑예배(탈북민) 매주 오후 2:00 3층 꿈아이홀
사랑부예배(장애우) 매주 오전11:30 3층 꿈아이홀
어린이영어예배(JEM) 오전 9:00 비전홀

수 원
031.895.6500

주일예배
1부 오전 7:00 / 2부 오전 9:00
3부 오전 11:30 / 4부 오후 2:00 / 5부 오후 7:00
대학청년 주일예배
대학부 14:00 경찬홀, 청년부 15:00 사랑홀
새벽예배 월~토 오전 5:2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온누리워십 매주 수 오후 7:40
차세대 주일예배
영아부 오전 9:00, 11:30 드림홀 / 유아부 오전 9:00, 11:30 조이홀 / 유치부 9:00, 11:30 소망홀 / 유년부 9:00(초1~3학년), 11:30(초1~2학년) 사랑홀 / 초등부 9:00(초4~6학년), 11:30(초3~4학년) 경찬홀 / 소년부 11:30(초5~6학년) 믿음홀 / 중등부 9:00 비전홀 / 고등부 9:00 믿음홀
영어예배 (어린이&중고등영어) 11:30 비전홀

대 전
042.825.3642

주일예배
1부 오전 9시 본당 / 2부 오전 11:30 본당
3부 오후 2시 본당 / 4부 오후 4시 본당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5 본당
토요새벽기도회▸ 매주 토 오전 6:0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본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오후 7:30 본당
차세대주일예배
예꿈(36개월~7세) 오전 09:00
꿈땅(초1~초6) 오전 09:00
영아부 오전 11:30 유치부 오전 11:30
유년부 오전 11:30 소년부 오전 11:30
초등부 오전 11:30 중등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9:00

남양주
031.565.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09:00 본당 / 2부 오전 11:30 본당
3부 오후 2:00 본당
주중예배
온누리미션예배(인도, 네팔) 매주 토 오후 7:00
사이닝글로리
새벽예배(월~토) 오전 5:20 3층 본당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3층 본당
수요목양예배 오후 7:30 3층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오전 11:30 2층 예꿈홀
유치부 오전 9:00 2층 예꿈홀
유년부 오전 9:00 2층 꿈땅홀
초등부 오전 11:30 2층 꿈땅홀
중등부 주일 오전 11시30분 기쁨홀
고등부 주일 오전 09시00분 기쁨홀

평 택
031.651.9680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2부 오전 11:30 본당
3부 오후 2:00 본당(대학청년)
주중예배 및 모임
수요온누리워십 수 오후 7:30 본당
How Mission 목 오후 7:30 비전홀
차세대예배
예수님의꿈아이 오전 11:30 본관2층
꿈이자라는땅 오전 9:00 본관2층
파워웨이브 오전 9:00 파워웨이브교육관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5:20 본당
주일국제예배
몽골어 예배 11:30 드림홀
인도네시아어예배 11:00 인도네시아 쉘터

인 천
032.437.9686

주일성인예배
1부 오전 9시 인천 글로벌캠퍼스 운영재단 지하1층
2부 오전 11시 인천 글로벌캠퍼스 운영재단 지하1층
3부 오후 1시 인천 글로벌캠퍼스 운영재단 지하1층
Web대학청년 오후 2시 프리스페이스 6층
차세대예배
-인천 글로벌캠퍼스 운영재단 지하1층(오전11시)
영아부 / 유치부
유년부 / 초등부
-프리스페이스 6층
중등부 오전 11시/ 고등부 오전 9시
사랑부예배(장애우) 오전 11시 프리스페이스 3층 기쁨홀
주일국제예배
헤븐리키즈(어린이영어예배) 13:00 인천 글로벌캠퍼스 운영재단 지하1층
몽골어예배 오후 1시 프리스페이스 3층
수요오전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프리스페이스 6층
수요부흥예배 매주 수 오후 7:40 프리스페이스 6층

강 동
02.475.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2부 오전 11:30 본당
3부 (프라미스청년) 오후 2:00 본당
프라미스U대학부 오후 2:00 사랑홀
차세대예배 (주일)
예수님의꿈아이(영아부) 오전 11:30 기쁨홀
예수님의꿈아이(유치부) 오전 11:30 두란노홀
꿈이자라는땅(유년부) 오전 11:30 드림홀
꿈이자라는땅(초등부) 오전 11:30 사랑홀
파워웨이브 오전 9:00 두란노홀
사랑부 오전 9:00 사랑홀
주중 예배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20 본당
수요오전예배 오전 10:30 본당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본당

양 지
031.331.8171

주일 성인예배
1부 예배 / 9:00 / 2층 김사무엘홀
2부 예배 / 11:00 / 2층 김사무엘홀
3부 두드림예배 / 14:00 / 지하1층 박모세홀(대청)
주일 차세대예배
예수님의 꿈아이(영아)/ 11:00 / 3층 주선애홀
(영상중계)
예수님의 꿈아이(유아,유치)/ 11:00/지하1층
무어홀
꿈이 자라는 땅(유년) / 11:00 / 지하1층 위더슨홀
꿈이자라는땅(초등) / 11:00 / 지하1층 킬보른홀
파워웨이브 / 11:00 / 지하1층 박모세홀
주중예배
새벽예배(월~토) / 5:20 / 1층 시안홀
수요선교예배 / 19:20 / 1층 시안홀

1115호 20160911 게시판_925호 편성표 게시판(15면없음) 16. 9. 23. 오후 5:25 페이지 2

Onnuri 온누리교회

http://onnuri.or.kr

국내 온누리교회

• **서빙고**
박종길 목사 (02) 793-9686 (대표)
04428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 **양재**
이상준 목사 (02) 573-9686(대표)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31길 70
횃불선교센터

• **부천**
박형준 목사 (032) 322-9686
14503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589

• **수원**
신기섭 목사 (031) 895-6500
17095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80

• **대전**
박태영 목사 (042) 825-3642~4
35234 대전시 서구 둔산로 64 굿모닝빌딩 3~6층

• **남양주**
안광국 목사 (031) 565-9686~8 (대표)
471-856 구리시 이문안로 154 진성빌딩 2~5층

• **평택**
김종민 목사 (031) 651-9680(대표)
17906 경기도 평택시 평택4로 26 2~3층

• **인천**
서경남 목사 (032) 437-9686 (대표)
21998 인천광역시 연수구 테크노파크로 113

• **강동**
노치형 목사 (02) 475-9686
05335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57길 14
나비빌딩 11, 12층

• **양지**
도육환 목사 (031) 331-8171
17156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62번길 20

■기도처

• **태안온누리**
송영동 목사 070-8627-7676
충남 태안군 태안읍 경이정3길 10
온누리교회 태안온누리

• **서산온누리**
송영동 목사 (041) 665-9686
충남 서산시 쌍연남3길 9 서산온누리교회

• **봉화온누리**
엄정순 권사 (054) 673-7428
경북 봉화군 명호면 만리산길 613

• **진새골온누리**
추수일 장로 (031)-767-2776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진새골길 166

해외 온누리교회

■미서부

• **얼바인**
권혁빈 목사 1-949-261-9100
17200 Jamboree, Irvine CA 92614 U.S.A.

• **로스앤젤레스**
이정엽 목사 1-213-382-5658
743 South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57. USA

• **샌디에이고**
금경연 목사 1-619-847-4147
8990 Miramar Rd. Suite 275 San Diego, CA 92126

• **산타모니카**
정장철 목사 1-213-235-5791
1420 Yale St. Santa Monica, CA 90404

• **괌**
김형철 목사 1-671-734-8522
155 Father Duenas St. Mangilao Guam 96913

■미동부

• **보스턴**
이훈 목사
1-781-933-7044
73 pine st. Woburn MA 01801 U.S.A.

• **네이퍼빌 시카고**
이중재 목사 1-630-753-9191
1433 NMain St. Naperville IL 60563

• **노스 시카고**
서재범 목사 1-847-571-8687
10 Deerfield Rd, Deerfield IL 60015 USA

• **뉴욕IN2**
Marc Choi 목사 1-212-427-2055
316 East 91st St., New York, NY 10128

• **뉴저지**
Marc Choi 목사 1-201-461-4010
1449 Anderson Ave., Fort Lee, NJ 07024

■미북부

• **포틀랜드**
이성권 목사 1-503-628-2000
19650 SW Scholls Ferry Rd.
Beaverton, OR 97007 USA

• **앵커리지**
박재영 목사 1-907-569-9191
4801 old seward HWY Anchorage, AK 99503

• **밴쿠버**
이한규 목사 1-604-888-0092
19711 86th Ave.
Langley, BC V2Y 1Z5 Canada
Worship: Pacific Academy Auditorium 10238 168th Street, Surrey

■오세아니아

• **시드니**
김철진 목사 61-2-9649-1180, 1190
18 MAIN Ave. Lidcombe NSW2141 Austrlia

• **오클랜드**
유현목 목사 64-21-0810-3132
7 Tamdale Grove, Albany, Auckland, New Zealand

■일본

• **롱경**
문봉주 목사 81-3-5937-3210
(169-0074) 3-39-7 Kitashinjuku , Shinjuku-ku, Tokyo, Japan

• **오사카**
이영선 목사 81-6-6121-2015
Naniwa 3F 1-3-19Higasisinsaibasi Chuoku Osakasi Japan 542-0083

• **우에다**
하카마타 미키 목사 81-26-821-4566
Nagano-ken Ueda-shi Oaza Suwagata 1377-64 JAPAN

• **요코하마**
서현 목사 81-45-641-6468
(231-0012)Yaomasa Bldg.4F,3-63 Aioi-cho, Naka-ku, Yokohama-shi, Kanagawa-ken, Japan

• **야치요**
니시야마 신이치 목사 81-47-482-1299
(276-0045)832-2, Oowada, Yachiyo-shi, Chiba-ken, JAPAN

• **나고야**
김철희 목사 81-52-938-5011
(454-0974) AICHI-KEN NAGOYA-CI NAKAGAWA-KU SHIMAI-CHO61 EHWA DAIAMOND 2F

• **교토**
야마나카 토모요시 목사 81-75-748-9303
Saiin Pram Bld 6F, Sanjocho 14, Saiin Wookyoku, kyoto japan

■중동

• **아부다비**
김태완 목사 971-2-665-7754
opposit embassy of Viet Nam, 23rd street, Al Mushrif, Abu Dhabi, UAE

■동남아시아

• **베트남**
김영철 목사 84-8-5412-2773
3SL 20-1 Grandveiw C, Phu My Hung, Q7, HCMC, Vietnam

■중국

• **북경**
강부호 목사 86-10-5301-9700
北京市 朝阳区 来广营西路 江大物业(内大地公司)
Beijingshi ChaoyangQu Laiguangying Xilu Jiangdawuye (Dadigongsi)

• **단동**
김대진 목사 86-415-313-6811
中国 辽宁省 丹东市 开发区 口岸贸易区 1区 D组 102号 韩国人 教会 王英
ZHONGGUO LIAONINGSHENG DANDONG-SHI KAIFAQU KOU'AN MAOYIQU 1QU DZU 102HAO

• **대련**
강은수 목사 86-411-8228-5253
辽宁省 大连市 中山区 春园里 春海巷二巷(526路炮台山终点站)
Liaoning-Sheng Dalian-Shi Zhongshan-Qu Chunyuan-Li Chunhaijieerxiang (526lu Paotaishan zhongdianzhan)

• **상해**
박만규 목사 86-21-5422-5801
中国 上海市 闵行区 漕宝路 1243号 3楼388室
Shànghǎishì Mǐnhángqū Cáobǎolù 1243hào yǒngwèishāngwùdàshà 3lóu 388shì

• **장춘**
박시형 목사 86-158-0431-5714
中国 吉林省 长春市 南关区 永长路 213号 onnuri.
zhongguo jilinsheng changchunshi nanguanqu yongchanglu 213hao onnuri.

• **청도**
최승구 목사 86-532-8801-2930
中国 山东省 青岛市 崂山区 香港东路69号 凯旋山庄 27号楼 1楼 网点
Zhongguo Shandongsheng Qingdaoshi Laoshanqu Xianggangdonglu69 Kaixuanshanzhuang27haolou 1lou Wangdian CHINA

섬기는 분들

◈담임목사
이재훈

국내 온누리교회

◈캠퍼스 담당목사
박종길 이상준 박형준 신기섭
박태영 안광국 김종민 서경남
노치형 도육환

◈부목사(전임)
강미향 강일영 강일하 권오향
권용갑 김경훈 김관수 김도균
김도윤 김상수 김성욱 김성원
김소리 김승수 김승완 김승훈
김영배 김영진 김영창 김요성
김윤식 김재석 김정숙 김정순
김정희 김종아 김찬호 김태용
김현실 김홍주 노규석 노희태
렵문홍 마이크리 문영재 박대원
박성SA 박성SB 박성천 박세웅
박승재 박승훈 박윤헌 박철웅
석승호 성준원 손신국 손정훈
송영동 신동식 신원석 스티브차
양성민 양재경 여성민 오 민
오은규 우윤상 원유경 유수열
유영순 윤경숙 윤길중 윤석원
이기원 이기진 이기훈 이길탁
이동훈 이민욱 이사엘 이상진
이서진 이성민 이윤재 이원진
이재원 이재정 이정환 이준호
이찬우 이해영 임용성 임항재
장세나 전신익 전재표 전홍희
전현규 정상훈 정성훈 정웅규
정재륜 정재욱 정현석 정형권
조동욱 조병홍 조바울 조준목
조현수 조호영 지대근 차명권
최성민 최성석 최영민 최용준
최혁중 채기석 한화수 홍기완
허원희 황재명 황종연 황준서

◈전도사(전임)
김용민 김재승 김종호 박사무엘
박승훈 배행삼 변대섭 송석근
유승현 이강현 이종현 정한효
한영철

◈경배와찬양 목회자
하스데반 이기복

◈협력목사
김도일 이기복

◈부목사(파트)
강은혜 곽상학 김지애 김종영
김창성 백명미 손 숙 신정빈
박찬라엘리 안희진 유세드제이 유승덕
윤용국 임선아 차제이미 한일웨슬리아
황능준 Enoch Kwaku Hanokh

◈전도사(파트)
강병천 강지영 강한성 고바우시사온
고인호 권효정 기호진 길혜영
김기태 김난희 김대운 김덕기
김라경 김민석 김민수 김선재
김세현 김소리 김승관 김영신
김요한 김용석 김은영 김은하
김진석 김진아 김진아 김진하
김찬숙 김형중 김혜경 김희연
나지혜 문장원 민경윤 박광규
박근명 박근범 박상명 박양원
박은자 박이호 박종익 박지예
박지원 방세미 배순양 백도훈
백영미 서종욱 서 철 서수민
서영희 송지은 신경훈 신대군
신중건 신하선 신현민 안사무엘
안용곤 양은주 양진범
오스라 오준현 유 경 유진아
윤모세 윤상복 윤수신 윤정노
윤준석 윤치연 윤현규 윤형림
이경선 이다솔 이덕주 이미령
이선영 이승윤 이양권 이완희
이용기 이우람 이은경A 이은미
이은희 이재석 이정도 이종민
이준인 이지원 이진이 이창우
이풍주 이현대 이현석 임경헌
임요한 임정남 임지훈 임호진
장동원 장유미 장재원 장춘혜
전가영 정구현 정만희 정에스더
정영광 정영희 정지혜 정지환
정진만 정진아 조묘구 조상훈
조성광 조성환 천정우 최규종
최대흥 최성규 최성필 최우윤
최재호 최정현 최현웅 하영은
하형훈 한대우 한민호 허원선
홍세녹 홍순영 홍정표
Lkhagvasuren Gan-Otgon

◈사역장로
강인지 권도원 김경선 김경철
김광선 김남열 김명철 김석인
김선래 김선택 김성순 김수광
김수웅 김영길 김원경 김원규
김원균 김원중 김용성 김윤식
김이곤 김인화 김종건 김종승
김주흥 김주현 김진국 김철수
김학모 김현철 노재한 류지열
문형남 박 공 박병익 박용국
박찬빈 배종수 백승웅 백호현
서진봉 서창희 서찬교 성창섭
송만석 송유신 송재길 신만인
신우권 안국영 양재수 엄태진
오성연 우광방 원우현 유완영
유재천 윤성열 윤지준 이강범
이건재 이국주 이두송 이만식
이부웅 이병현 이상욱 이영걸
이영세 이영철 이옥연 이용경
이용하 이용대 이종순 이창남
임광택 장양희 정강무 정돈영
정보원 정순풍 정영열 정윤채
정인순 정용화 정재탁 정재현
정희태 조규상 조성근 조항진
주수일 주웅일 차승철 최선수
최 명 최창규 최충길 최희영
하영철 하용기 한종대 홍기명
홍성재 황용오 황재규

◈시무장로
강기석 강부순 강신익 강영재
강영중 강의선 강찬석 강철호
고 건 고광필 고다이라 고영주
곽진성 구재영 권득한 권영석
권오섭 권오혁 권용성 권용한
권칠준 김 완 김 웅 김 원
김관근 김관식 김광동 김기영
김기호 김남식 김도영 김동언
김두진 김만순 김명세 김명종
김명현 김명훈 김민호 김병순
김병옥 김상섭 김상인 김상집
김선호 김성균 김성묵 김성종
김성진 김수역 김승열 김연상
김영수 김영욱 김영한 김영환
김용호 김의득 김인선 김인선
김장열 김재욱 김재일 김종성
김종호 김준규 김준영 김준홍
김지현 김지홍 김창욱 김철민
김철주 김태경 김하중 김해기
김형겸 김형식 김형준 김회수
김효구 나상권 나영욱 남명현
남상길 남상욱 박동현 박두원
노흥규 류기범 명영찬 문성기
문영기 문창극 문창호 문충실
문현구 민문기 박덕현 박병기
박대호 박명률 박봉래 박성근
박석봉 박성규 박승우 박영국
박순길 박승우 박영국 박영태
박영태 박영한 박우형 박일구
박일면 박종현 박지수 박태성
박해한 박현규 박형민 박흥균
박흥선 박찬종 배 문 배기영
백남인 백흥기 상병선 서명수
서병화 서성렬 서성현 성주명
손기철 손정래 손태용 손한기
송동섭 송영범 송영태 송일섭
송종환 송창도 신무환 신민호
신영각 신학철 신현승 신현길
신현종 실길섭 실남달 실내문
심창구 심춘보 안동혁 안명태
안성영 안용태 안종인 안태환
양상식 양유식 양주현 양춘경
양충식 오상록 오성훈 용내문
우승구 원종호 유 형 유병진
유병훈 유윤하 유의준 유재홍
육동건 윤기홍 윤석우 윤영각
윤영섭 윤영오 윤현덕 윤형주
이 철 이경찬 이경훈 이관수
이광순 이광형 이규천 이기증
이길수 이남수 이남식 이동규
이동희 이백용 이봉의 이상기
이상도 이상율 이석일 이수완
이승배 이영근 이영복 이우곤
이은일 이인용 이장로 이재경
이재규 이재준 이재호 이정구
이정근 이종우 이태열 이태환
이한열 이해달 이헌규 이현조
이홍선 이화영 이희주 임 훈
임광순 임병수 임정열 장 광
장경문 장경식 장광열 장규환
장선철 장형준 전구영 전영수
전장하 정광열 정동욱 정명호
정문규 정병균 정상기 정수업
정영규 정영기 정영주 정영택
정운섭 정운오 정진하 정진호
정태경 정파종 정학영 조희원
조대식 조대희 조성현 조성환
조정구 조희동 주재량 차준구
차준한 천영무 최도성 최득린
최민철 최상근 최석민 최성완
최주관 최진성 최창수 최한우
최현재 편무옥 피터웰디 하성기
한갑수 한규종 한덕종 한백진
한양희 한왕석 한창격 한충희
한형식 함공식 함일성 함정철
허광수 허복만 허영남 허필우
허형석 홍덕표 홍범식 홍성호
홍의택 홍정표 홍종철 홍해남
황병원 황영옥 황윤일 황의서

◈명예장로
마흥규 문태준 박동순 양원명
이용만 이원로 이혁상 임대지
장욱룡 장응복 정광택 정병주
정상건 지성한 채수삼 최창걸
황용식

◈협동장로
강승모 권준길 김갑선 김정훈
김 준 남영태 류수광 리처드박스
박자인 박형규 양호승 우상근
유재건 이경희 임웅규 전태경
정지석 주치수 최대화 최원호
최종훈 추교명 함지언 황재익

◈성가사
강순영 강중현 강혜영 김기덕
김건주 김병우 김세일 김형겸
김정환 김지형 김혜경 김형준
김희정 남윤창 박정규 손창우
송정희 서동희 신준환 오승현
오지훈 오희경 유선애 윤은희
이미선 이민호 이신영 이수정
이세미 이수연 임진순 조미라
조익현 조정훈 전병곤 정성미
채미현 최경열 최영은 최윤석
최지선 최재영 최훈희 홍용식
홍정표

◈반주자
김기아 김병성 김선경 김성규
김수현 김순인 김연아 김은경
김은섭 김은실 김은영 김인영
김주나 김지영 김지희 남민희
남궁지 노성희 박선희 박 숙
박영숙 박진용 방 휘 석지혜
이혜진 안은영 안은영 양지연
양혜선 우경진 유재경 유지영
윤정희 유현지 이강석 이나래
이예진 정경미 정다혜 조영혜
조하나 최은미 최희정 한은미
홍보승 배원신 강영은 황대준
허윤선

해외 온누리교회

◈OMA담임목사
김형철 박재영 이정엽 이중재

◈담당목사
강부호 강은수 권혁빈 금경연
김대진 김시연 김영철 김철진
김철희 김태완 박재영 시이치 신이치
마크최 문봉주 박만규 박시형
서재범 서 현 유현목 이성권
이영선 이한규 이 훈 정장철
최승구 하카마타 미키

◈부목사
강일하 곽성환 권희경 금동섭
김미정 김인숙 김시연 김태환
노경호 문성일 박근택 박신웅
박수환 박우람 박주영 박택근
박찬민 방지남 백인호 서성광
심상현 손병호 여필종 유동우
유정훈 이경호 이세영 이일표
이재웅 이지훈 이종실 이한성
전상현 전홍렬 정동윤 정용환
조수정 조의환 진영국 최영진
최정무 허 민 홍동욱 홍성훈
홍세반 James Park joseph Chu Joe Lee
Lee Yi Sam An

◈전도사
강성근 강찬호 강창환 개지마에미코
김산성 김성민 김성진 김성현
김인혜 김우신 김정욱 김지현
김진완 김현경 구혜선 노경호
레이첼렉 마커스 문하나 민성민
박우람 박유리 박종구 박지혜
박향진 박현얼 박현욱 배윤희
백일승 샘 리 서민표 서재욱
설산정 손미경 손주은 송준헌
신기원 안지현 양달샘 연공주
윤경선 이복음 이상수 이수연
이은희 이재경 이지나 이현우
윤성민 장세윤 장제홍 지자영
전희동 정선진 정은숙 정인교
정승철 정호석 조 단 최성배
최은정 최정수 최진숙 코바야시 메구
하보라 하토리 타케시 핸은오 홍가람
Christine Shin David Kim JeanaLee Jeff Yoo
Jonathan Kim Tommie Njobvu

◈장로
권덕수 김경덕 김수호 김재동
백 학 손진성 신중수 이덕한
이상덕 이만영 이문호 장우진
정길안 조록형 조성민 함선호
허규회 홍규석

◈명예장로
김용석

◈협동장로
강광일 강봉림 김경문 김동민
김연수 정두호 정석환 최승호
윤한돈 이재원 임헌식 최태영
김종수

◈성가사
고양숙 김성수 김용재 남명호
노용진 도승희 박민규 박선영
박소영 박우람 송희경 엄지영
여훈필 염혜숙 우아경 이정민
이정우 이종현 정영진 정현경
조경화 조요셉 최승준 최정혜
홍현철 황애란 황진주

모집

162기 아름다운 동행 (부부코칭 프로그램)
일정: 9월 24일~11월 19일(토) / 매주 토 오후 3시~ 6시
장소: 서빙고 비전홀
문의: 윤병욱 팀장(010-5255-7363)

44기 젊은 부부학교 (다시 떠나는 신혼여행)
일정: 10월15일~11월5일(매주 토/3주차는 1박2일)
자격: 결혼기간 12년차(초과하신 분은 별도 상담요망)
비용: 35만원(9월 30일 이전입금시 30만원)
접수: 10월 10일까지 선착순 40가정 (입금기준)
문의: 김용환 총무(010-6602-4003)

28기 이혼자 행복학교
일시: 10월 22일~11월 19일(5주간), 2주차(1박2일 포함)
매주 토(5주간) 17:30~21:30
장소: 온누리교회 서빙고성전(두란노홀)
신청: 이혼위기 및 별거중인 남녀, 이혼한 남녀, 재혼을 준비 중인 남녀, 자녀돌봄(초등 5학년까지)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온누리신문

등록번호 다-3802호
발행인: 이재훈
편집국장: 문창극
편집부장: 김남원
기자: 정현주, 김현준, 김미림, 김영선, 이소정
140-026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전화: 02-3215-3193 홈페이지: news.onnuri.org
온누리신문은 재생용지를 사용합니다

온누리 복지재단

군포시청소년쉼터하나로 학습 자원봉사자 및 후원품 모집
검정고시(수학,과학,윤리,국사) 및 악기(통기타) 후원
문의: 임재금 팀장(031-399-7997)

온누리요양센터 입소자 및 요양보호사 모집
문 의: 이주현 과장(070-4489-6889)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자원봉사자 모집
내용: 기계목욕 및 안내
시간: 기계목욕(화요일 10:00~12:00), 안내(시간협의)
문의: 이지희 사회복지사(3407-2747)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은퇴금융 아카데미' 참여 모집
내용: 은퇴관련 경제금융지식 및 은퇴생활정보
대상: 은퇴준비에 관심있는 전국민
장소: 용산노인종합복지관
기간: 10월 13일~11월 17일(매주 목요일 1시~4시, 6회)
문의: 신청방법관련 문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02-2014-7543, 7531), 안선영 사회복지사(02-794-6100)

청파노인복지센터 TV 후원요청
내용: 가정용 1대(어르신 댁 고장난 TV 대체)
문의: 차혜민 사회복지사(070-4340-2599)

재 정

십일조 계좌: 하나은행 573-810034-10105
해외선교계좌: 하나은행 573-810034-09105
비전의땅 헌금: 하나은행 573-910001-23005
* 은행계좌로 송금시 이름과 주민번호 앞 네 자리 또는 여섯 자리(김모모501010)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 담

■ 서빙고

온누리 상담실(선교관 지하 1층)
상담접수: 02-793-2997~8 (모든 상담 사전예약 필수)
(화~금: 오전10:00~오후5:00, 토~일: 오전10:30~오후3:00)
면접상담 신앙, 개인, 부부, 가족, 이혼, 청소년 상담, 미술치료
전화상담 위기시에만 제공
심리검사 MMPI-2, MBTI, 종합심리검사, 에니어그램, U&I 학습, 진로탐색검사
특수상담 세무상담: 첫째 주일 오전 10:30~12:00
정신과, 법률상담: 둘째 주일 오전 10:30~12:00
암환자 상담: 주일 오후 3:00 이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상담: 수요일 오후

■ 양 재

온누리상담센터(원형커피숍 자동문안쪽)
상담접수: 570-7536~7(상담예약 필수)
개인, 부부, 가족, 아동, 청소년(영어 상담 가능)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 오전 10시~오후 3시
각종 심리검사 및 집단 치유 프로그램
법률 상담: 일요일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세무 상담: 둘째 주일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소천

9/9(금) 마포 이명진 자매 모친상 고 권준영
9/10(토) 중종로 이성우 형제 모친상 고 이원자
9/11(주일) 양재공동체 김정은성도 모친상 고 조순옥
9/13(화) 찬양사역 강남영 집사 시부상 고 윤길선
9/14(수) 김진선 성도
9/14(수) 성북 김향미 자매 부친상 고 김경진
9/15(목) OCC 김근철 성도 부친상 고 김범섭
9/15(목) 서초B공동체 정하정집사 부친상 고 정시영
9/16(금) 이수 홍성아 집사 부친상 고 홍인표
9/16(금) 마포 소태수 성도 모친상 고 허미자
9/17(토) 강남C공동체 김희재집사 빙모상 고 김계화
9/18(주일) 강남A공동체 유승석 성도 부친상 고 유중호
9/18(주일) 성북 고춘광 집사 모친상 고 이귀진
9/19(월) 서대문 엄만용 집사 부친상 고 엄기동
9/19(월) 중종로 호종일 집사 모친상 고 한승호
9/19(월) 김포 김준수 집사 빙모상 고 임순임
9/19(월) 일본어예배 이전흥 집사 부친상 고 이덕균
9/20(화) 일산 최경선 자매 부친상 고 최기철
9/20(화) 서대문 이영희 집사 모친상 고 홍기희
9/22(목) 노원 이순례 성도

1115호 20160911 게시판_925호 편성표 게시판(15면없음) 16. 9. 23. 오후 5:25 페이지 3

2016 남성부흥축제 요셉행전

묵상하는 목수들

Contemplative Carpenters



MAIN SPEAKERS

이 재 훈 목사
온누리교회 담임

폴 스티븐스 교수
리젠트 칼리지

GUESTS

강석우 집사 • **방선기** 목사 • **천종호** 판사
문애란 대표 • **배재철** 테너 • **정진호** 대표

2016. 10.5(수)–8(토)

수~금 오후 7:30 / 토 오전 10:00 – 오후 5:00
온누리교회 양재 본당 (사랑홀)

등록비 10,000원 (10/2 마감) 하나은행 **573-910016-41605** (예금주:온누리교회 부흥집회)
문의 02-570-7322, 02-570-7323
등록절차 남성만 신청 가능합니다.
1. 온라인 : 온누리교회 홈페이지 – 요셉행전 배너 클릭
2. 목회지원실 또는 로비접수처에 신청서 제출▸ 회비입금 (입금확인 문자발송)

※ 신청자와 입금자가 다를 경우 필히 확인 전화 바랍니다.

Onnuri Community Church